

기호학적 텍스트 분석: 『백년 동안의 고독』의 의미작용체계 연구

유 왕 무 (한국외대, 중남미문학)

1. 서 론

소설이란 담론에서의 언어구성과 여러 층위에서 형성된 요소들의 결합관계 작용으로 발생한 의미의 생산과정의 결과물이다. 즉, 소설은 다양한 의미 작용(Plurisignificación)을 내포하는 언어공간에서 개인과 사회, 인간과 세계의 갈등, 대립 관계를 형식과 내용, 담론과 이야기의 조화를 이루며 거듭되는 변환과정(proceso de transformación)을 통해 표현하려는 노력의 구체적 산물이다.

그러므로, 소설을 분석한다는 것은 곧 변환과정을 통해 작가가 표출하려는 의미작용을 평가하는 작업이다. 이 때 비로소 소설의 핵심을 이루는 의미있는 구조(estructura significativa)를 직시할 수 있는 것이다. 특히 현대 중남미 소설들이 과거와 달리 특정 사회상의 단순한 기계적 반영을 벗어나 사회적 문제의 내재화-내면화 과정을 다루는 글쓰기 체계로 발전함에 따라, 언어의 의미론적 역할이 강화되고, 다양한 의미소 동력체계가 작품 내재구조 속에 자리잡게 됨으로써, 단순한 역사적 관점의 분석이나 주제분석 보다는 복잡하게 구성된 의미작용 체계 연구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주지하다시피, 마르케스의 『백년 동안의 고독』은 콜롬비아의 비논리적인 부조리의 세계를 신화와 사실적 요소의 결합을 통한 조직적이고 역동적인 구조로 표현한 것이다. 자본주의 생산양식의 도입으로 인한 경제적 갈등, 정치적 이데올로기로 인한 대립속에서 합리적, 인간적 가치를 추구하려는 작가의 노력이 많은 변화과정을 통해 내재적 구조속에 용해되어 의미있는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진실된 가치가 결여된 시대에서의 인간의 위기문제를 다룬 본 소설은, 문학적 언어기호가 특정시대, 특정공간에서 변화하는 구체적 사회구조의 소산임을 알 수 있게 해준다.

본고에서는 『백년 동안의 고독』이 어떠한 의미작용 과정(el proceso de

significación)을 거쳐 어떠한 의미있는 구조를 나타내게 되었는가를 분석하려 한다. 이는 곧 역사적 대립, 갈등관계속에서 이루어진 인간관, 인생관, 세계관을 파악하려는 노력인 것이다. 또한 이러한 노력은 작품의 배경이 되는 콜롬비아의 사회, 더 나아가서는 중남미의 개인, 집단, 계층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양식의 이해를 위해 도움이 되며, 소설이 궁극적으로 표현하려는 개인과 사회, 인간과 세계와의 관계를 조명하는 것이 될 것이다.

본 소설의 의미작용체계 분석을 위해 본고에서는 기호학적 접근을 시도하려 한다. 기호체계 뿐 아니라 문화현상 전반을 연구하는 원칙인 기호학은 모든 층위와 요소들의 조합적 관계를 통한 총체성을 탐구한다. 이를 통해 우리는 작품속에 내재된 일련의 변환과정과 가치체계를 파악하고 작가가 표현하려는 이념소(ideologema)를 추출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송화자와 수화자간의 의사소통의 단계를 넘어서, 보다 일반적 과정인 의미작용을 파악하는 작업은 『백년 동안의 고독』의 본질적 의미를 간파하고 작품에 대한 재평가를 가능케 해 줄 것이다.

이를 위해, 먼저 기호학 연구의 근간이 되는 층위를 분류함과 동시에 본고의 경계를 설정하고, 분류된 층위에 따라 소설의 의미작용과정을 추출해 보자. 그 후, 텍스트의 총체성을 이루는 의미있는 구조를 파악하려 한다. 이러한 전개과정은 본고가 단편적, 지엽적 분석의 결과에 빠지는 것을 방지하고 작품의 전체적 의미 파악을 가능케 할 것이다.

2. 문학 텍스트의 층위 분류

문학 텍스트는 다양한 층위(nivel)의 혼합으로 구성된 복잡한 기능체계이다. 이 다양한 층위들은 여러 측면(plano)들이나 종속측면(subplano)들과 상호관계를 가짐과 동시에, 구조적으로는 텍스트의 총체성과 연결되어 있다. 따라서, 문학 텍스트는 다면성(multidimensionalidad)을 지니고 있으며, “모든 구성요소들은 동일한 중요성이나 성격을 지니는 것이 아니며, 각 요소들 사이에는 계층(jerarquía)이 존재한다.”¹⁾

텍스트의 구성요소들은 횡적(통합적 질서: ordenamiento sintagmático), 그리고 종적(계열적: paradigmático)으로 편성되어진다. 횡적 구조는 문장이 전

1) Wolf Hollçerbach, “Ensayo de teoría literaria”, en *Rev. Proemio* (Madrid: Planeta II, 3, diciembre de 1971), p.374.

개되고 난 후 그 속에 있는 요소들과의 관계인 데에 반하여, 종적 구조는 층위들 - 표층 층위(nivel superficial)와 심층 층위(nivel profundo) -과 다른 여러 측면들(이 중에는 기표/기의, 혹은 표현/내용의 두 가지 대립관계가 두 드러진다) 사이의 관계로 특징지워진다.

이에 따라, “기호학 요소들은 계층간 상호관계로 결정되어진다”²⁾라고 정의되며, 층위의 개념은 기술방법의 정립과 기호학적 타당성을 정의하기 위한 기본적 개념이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분석의 층위를 구별하지 않고서는 어떠한 분석도 일관성있게 행해질 수 없으며, 특히 기호학적 관점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이토록 중요한 텍스트 층위를 결정하는데 있어 엘름슬레브(L. Hjelmslev)의 4분법을 원용해 보자.

코펜하겐 학파는 텍스트의 드러남(manifestación textual)을 표현(expresión)과 내용(contenido)의 결합으로 정의한다. 그들은 표현과 내용의 관계를 상호보완기능을 통한 ‘결속(solidaridad)’이라는 용어로 구체화한다.³⁾ 기표가 중심이 되는 표현의 측면은 자연어의 특성을 연구하는 언어학 연구분야이다. 반면, 자연어로 이야기된 내용을 의미하는 기의 측면이 그레마스 기호학 연구의 대상이된다. 즉, 오래동안 기표 측면연구에만 치중했던 언어학의 불균형적 분석 상태에서 기의 측면연구의 틈을 메워준 사람이 바로 그레마스이다.

또한, 표현과 내용의 각각의 층위에는 형식(forma)과 실체(sustancia)의 두 측면들이 존재한다.⁴⁾ 따라서, 기호학 연구대상인 내용의 측면은 형태론을 통해 이해되는 의미론 영역인 내용의 <실체>와, 구문론 형태의 배열로 간주되는 내용의 <형식>을 고찰하게 된다. 이 연구형태는 상호보완적이다. 그런데, 이러한 내용연구의 기본요소인 서사(narración)에는 두 가지 층위가 존재하게 되는데, 그것은 내재적 층위(nivel de inmanencia)와 드러남의 층위(nivel de la manifestación)⁵⁾이다. 전자는 심층 층위(nivel profundo)와 후자는 표층 층

2) A. J. Greimas, *En torno al sentido-Ensayos semióticos*, (Madrid: Editorial Fragua, 1973), p.19.

3) “표현없는 내용이나, 내용없는 표현이란 있을 수 없다.” Louis Hjelmslev, *Prolegomenes a une théorie du langage* (París: Minuit, 1943), p.8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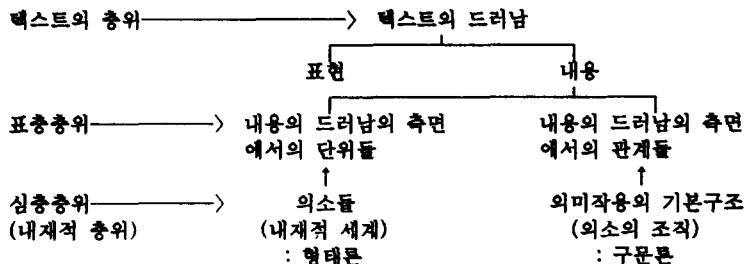
4)

이야기	—표현	┌	실체: 음성적 연결(cadena fónica)
			형식: 언어학적 체계(sistema lingüística)
—내용	┌	┌	실체: 의미론(semántica)
			형식: 문법(gramática)
			<table border="0" style="display: inline-table; vertical-align: middle;"> <tr> <td>—형태론(morfología)</td> </tr> <tr> <td>—구문론(sintaxis)</td> </tr> </table>
—형태론(morfología)			
—구문론(sintaxis)			

J. Courtés, *Introducción a la narrativa y discursiva* (Buenos Aires: Hachette, 1980), p.41.

위(nivel superficial)와 연결된다.⁶⁾

지금까지 살펴본 바를 종합하여 본고가 취할 기호학적 의미작용체계 연구 영역을 시각적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⁷⁾



위 연구영역의 특징은 내용의 <실체>를 다루는 의미론과 <형식>을 다루는 문법의 영역을 통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다룸으로써, 텍스트가 궁극적으로 전달하려는 의미(sentido)를 파악하는데 있는 바, 한 텍스트의 의미는 동일층위, 혹은 상·하의 다른 층위들에서의 상이한 단위, 요소, 성분들간의 관계속에서 드러난다. 그러면, 위에서 제시된 층위 구조의 분석을 통해서 『백년 동안의 고독』의 의미생성이 어떤 변환과정을 통해 나타나는가하는 의미작용과정을 살펴보기로 하자.

3. 의미작용과정 연구

3.1. 표층층위 분석

3.1.1. 이야기체 진행의 과정과 체계

모든 담화는 특성있는 서술단위들로 구성되어지고, 그 서술단위들은 기능(función)이라 불리는 보다 작은 미세한 단위들로 이루어진다. 즉, 담화는 시퀀스(secuencia)들로 구성되어지는데, 이 시퀀스는 곧 기능들의 재조합으로

5) 이때의 드러남의 층위는 내용의 드러남이므로, Greimas가 종종 사용하는 텍스트의 드러남 층위(manifestación textual)와는 구별된다. 텍스트의 드러남 층위는 내용과 표현의 혼합으로 나타난 텍스트 자체를 이야기하는 것이므로 기호학적 분석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6) A. I. Greimas, *op.cit.*, p.153.

7) J. Courtés, *op.cit.*, p.42.

형성되는 것이다. 따라서, 『백년 동안의 고독』이라는 담화구조의 분석을 위하여 행위자들의 기능⁸⁾을 통해 이루어진 시퀀스를 논리적으로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 특히 마르케스는 본 소설에서 시간적 연속성을 파괴하는 서술기법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체적으로는 순환적 시간성을 보여주고 있지만, 미래의 예측과 과거의 회상을 혼합하여 소설의 전체 구조를 이끌어 나가기 때문에 소설 분석에 논리성과 일관성을 부여하는 시퀀스의 탐색이 필요한 것이다. 시퀀스는 서사의 전체 의미작용과정내에 존재하는 기의 단위들로서, 그 자체 내에서 의미있는 특성을 가짐은 물론 각 시퀀스의 상호관계 연구를 통해 통합적 의미를 찾아 볼 수 있을 것이다.

시퀀스 분석은 시간, 장소, 행위자 등 여러가지를 기준으로, 각 분석 대상 텍스트에 알맞게 행하여질 수 있는 바, 본고에서는 『백년 동안의 고독』의 핵심 의미소를 이루며, 중남미 전체의 역사를 상징하고 있는 마콘도의 존재를 중심으로 다음과 같이 크게 세 단계로 분류해 보자.

S.I: 마콘도의 건설

S.II: 마콘도의 변환

S.III: 마콘도의 파멸

이 세가지 시퀀스는 텍스트의 담화 전체를 포괄하는 것이며, 각 시퀀스는 내부적으로 더 작은 단위들인 종속 시퀀스의 존재를 내포하고 있다: “시퀀스는(…) 하나의 서사로써 기능할 수 있는 자치성 있는 서술 담론의 한 단위이다. 그러나, 동시에 더 큰 구조의 서사 속에 하나의 부분으로 통합되어 그 속에서 특별한 기능을 수행할 수도 있다.”⁹⁾

이와 같은 척도에 의해, 텍스트의 표상적 여정(itinerario figurativo)을 고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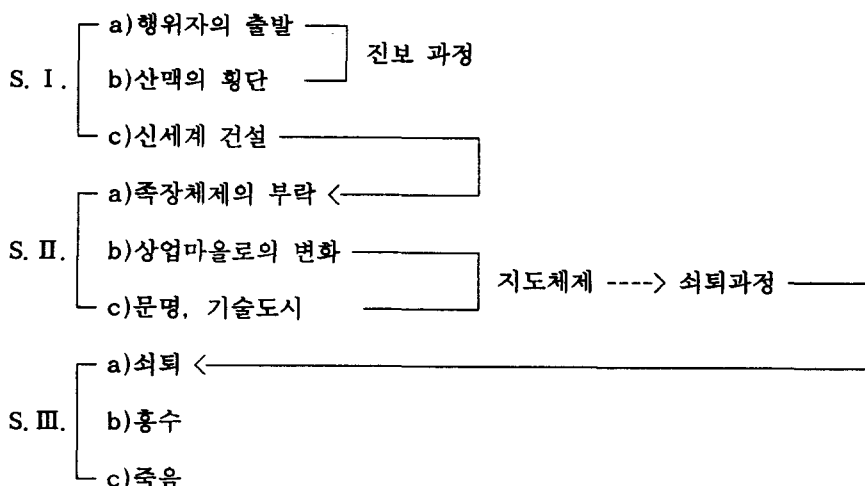
8) V. Propp은 그의 저서 *Morfología del cuento* (Madrid: Fundamentos, 1985)에서, “기능을 통해서, 우리는 줄거리 진행에서 의미작용의 관점으로부터 정의되어지는 인물의 행동을 이해할 수 있다”(p.33)고 말한다. Roland Barthes는 그의 글 “Introducción al análisis estructural de los relatos”, (en *Comunicaciones*, No.8, 1976, Buenos Aires: Niebla)에서 기능을 “내용의 한 단위”(p.17)로 정의하고 다음과 같이 분류하였다.

- A. 배분적 기능
 - 1) 기본기능(funciones cardinales) 혹은 핵심(Núcleos)
 - 2) 부수기능(funciones secundarias) 혹은 접촉(catálisis)
- B. 통합적 기능
 - 1) 징후(indicios)
 - 2) 정보(informaciones)

본고에서의 시퀀스 분석은 핵심(núcleos) 혹은 매듭(nudos)으로 정의되는 기본기능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것이며, 행위자(actantes)에 대해서는 본고가 진행됨에 따라 그레마시론을 중심으로 설명되어질 것임.

9) A. J. Greimas, *op.cit*, p.292

하면, 다음과 같은 세부적 시퀀스 분류가 가능하다.



상기 분석은 마콘도라는 공간을 중심으로 시간의 흐름과 주요 행위자의 변환에 따라 3단계의 기능으로 나눈 것이다. 즉, 각 시퀀스는 "a)사건이나 행동을 미리 내다보고 진행의 가능성을 열어주는 기능, b)이러한 잠재성을 사건이나 행동으로 실행하는 기능, c)그의 결과적 형태로 진행의 과정을 폐쇄하는 기능"10)의 세가지를 반드시 지니고 있다. 따라서 S. I., S. II., S. III.의 복합 시퀀스들은 각기 3단계의 기본 시퀀스로 구성되고, 이들은 모두 후속 시퀀스와 논리적 인과관계로 인한 계속성을 지니고 있으며, 텍스트의 무질서를 바로 잡아주는 기능을 하고 있다.

이와 같은 시퀀스의 테두리에서, 문체들(figuras)은 통합적 질서와 계열적 구조관계를 이루며 형성되고, 시퀀스의 표상적 행보는 이야기체 진행(programa narrativo: PN으로 약칭)을 형용화시키는 기능을 하게 된다.

이야기체 진행은 모든 담화의 종류에 적용되는 행위자 구문론에 의존하는 역할을 한다. 그것은 "단순한 단위들이지만 더욱 다양하고 복잡한 구문론적 서술형태에 민감하게 영향을 받을 수 있다."11) 이러한 PN의 개념속에는 주체(sujeto)와 객체(objeto)의 관계와 변형에 기초를 둔 일련의 '상태(estado)'와 '변환(transformación)'의 모습이 눈에 띈다. 따라서, 표층구조의 서술적 구문

10) Claude Bremond, "la lógica de los posibles narrativos", en Barthes, etc., *Análisis estructural del relato*, Comunicaciones, No. 8. op.cit, p.8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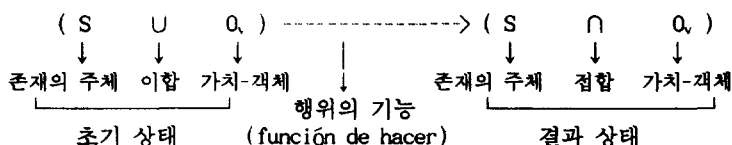
11) J. Courtés, op.cit, p.14.

론에 위치한 PN은 최소한의 구문론적 단위로서 상태의 언술(enunciado de estado)과 그것을 요구하고 지배하는 행위의 언술(enunciado de hacer)로 구성되어진다.

PN 분석은 텍스트의 변형과정을 파악하기 위한 사전단계로서, 텍스트의 이해방법을 제시함과 동시에 텍스트의 본질에 접근하는 길로 유도해 줄 것이다. 따라서, 이 분석은 상이한 구문론적 단위들을 분리함으로써 그들의 본질적이고 고유한 특성과 상호관계를 추출하고, 궁극적으로는 그로 인해 발생하는 기의 효과와 텍스트의 총체적 의미를 알아보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기본 개념 하에 좀 더 구체적으로, PN의 두가지 종류를 살펴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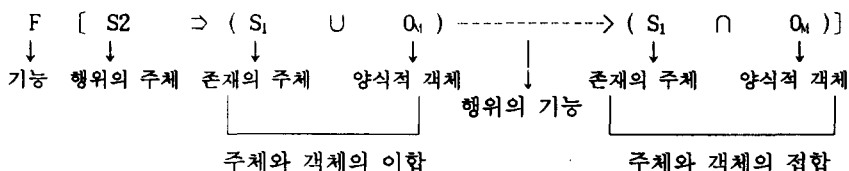
1) 기본 이야기체 진행(Programa Narrativo de Base: PN.B.로 약칭)

이는 담화의 총체적 구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초기의 상태의 언술이 결말의 상태의 언술로 변환되어지기를 희망하는 형태로 나타난다. 일반적으로 주체는 가치적 객체(objeto de valor)를 획득하려 한다. 시간적으로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2) 사용 이야기체 진행(Programa Narrativo de Uso: PN.U.로 약칭)

이는 행위들(haceres)이 이루어지는 단계의 진행형태로써, 이 행위들은 주체와 객체의 접합이 행해지게끔 조작한다. 따라서 이 진행상태에서는 양식적 객체(objeto modal)를 소유하게 하는 행위의 언술이 등장한다.



PN.U가 PN.B와 구별되는 점은 상태의 언술의 변환을 가능케 하는 행위의 주체(혹은 조작적 주체)인 S_2 가 등장한다는 점이다. 이때, S_2 는 존재의 주체인 S_1 과 동일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전자의 경우를 ‘재귀행위(hacer reflexivo)’라 하고 후자의 경우를 ‘타동행위(hacer transitivo)’¹²⁾라 일컫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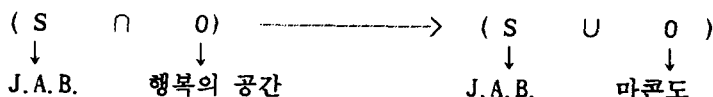
상기 두 형태의 이야기체 진행은 종속관계를 지니고 있다. 따라서 PN.U.는 PN.B.보다 앞서 진행되며, PN.B.는 두개 혹은 여러개의 PN.U.를 요구할 수도 있으므로, 본고에서도 필요에 따라 PN.U.를 설정할 것이다. 아무튼 PN.는 논리적 담론 분석을 위한 필요불가결한 수단으로, 더욱 발전된 구문체계 파악을 통한 소설의 의미작용 과정을 밝혀 줄 것이다.

그러면, 『백년 동안의 고독』의 총체적 이야기 전개가 마콘도라는 공간으로 일어나는 사건의 핵심요소들로 구성되어진다는 관점에서, 마콘도가 건립, 발전, 쇠퇴되어 가는 변환단계에 초점을 맞추어 PN을 분석해 보자.

1) PN.B.I.: 새로운 역사창조를 위한 신세계 탐험(마콘도의 건립)

『백년 동안의 고독』의 역사의 장을 연 중심 행위자는 호세 아르카디오 부엔디아(J.A.B.로 약칭)와 우르술라이다. 신대륙 출신 사나이의 고손자와 아라곤 출신 사나이의 고손녀인 그들은 3백년전인 16세기경부터 같은 마을에서 피를 서로 섞어 온 두 집안의 후예들이었다. 즉, 그들은 사촌간이었다. 과거 양가의 근친혼 결과로 이미 “나사송곳처럼 생긴 끝에 까칠까칠한 털이 난 물렁뼈 꼬리”¹³⁾가 달린 아이를 얻은 경험을 한 친척들은 두 행위자의 결혼을 반대했으나, J.A.B.의 결심으로 마침내 그들은 혼례식을 올리게 된다: “말만 할 수 있으면 되는 거지, 돼지 같거나 말거나 무슨 상관이야”(p.23)

그러나, 이들 부부는 결혼 후 프루덴시오의 살해로 인한 양심의 가책으로 현 인디안 마을을 버리고 새로운 희망의 세계로의 이주를 결심한다. 마침내 그들은 신세계인 마콘도에 도착하게 되고, 그로부터 백년동안이나 계속되는 고독에 싸인 부엔디아 가족의 역사와 흥망성쇠를 이루는 마콘도의 역사가 『백년 동안의 고독』의 중심 서술구조를 이루게 된다. 상태의 언술 변화를 통해 PN.B.I를 정리해 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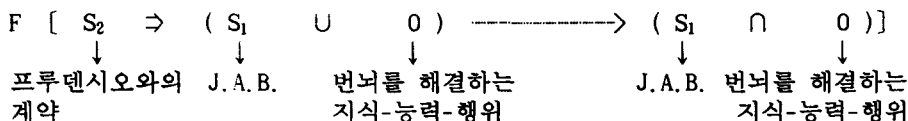


12) Greimas는 이와 같은 두가지 행위를 분류하면서, 재귀행위가 우세한 구조를 심리-기호학적 형태의 서사화(내면적 삶)라 하고, 타동행위가 우세한 구조를 사회-기호학적 형태의 서사화(신화와 이데올로기)라고 구별한다.(J. Courtés, *op.cit.*, p.67 참조)

13) G. G. Márquez, *Cien años de Soledad* (Barcelona: Círculo de Lectores, 1970), p.23. 이후 해당 쪽수만 표기할 것임.

그러면, '새로운 역사창조를 위한 신세계 탐험: 마콘도의 건립'이라는 언술로 표현되는 PN.B.I.의 전개과정을 PN.U.를 통해 자세히 살펴보자.

1.1.) PN.U.(1): 리오아차로부터의 이주



J.A.B.와 우르술라는 비록 결혼은 하였지만, 기형아가 태어날 것을 두려워하여 사랑의 행위를 이루지 못한다. 이윽고 마을에는 J.A.B.가 성불능이라는 소문이 돌기 시작하였고, 마침 닭싸움 내기에서 진 프루덴시오가 J.A.B.에게 모욕적 언사를 행함에 따라 두 행위자는 명예를 건 대결을 벌인다. 이 대결에서 프루덴시오를 살해한 J.A.B.는 '양심의 가책'을 느낀다. 거의 매일밤 J.A.B.의 집을 배회하고 있는 망자 프루덴시오의 환영을 본 이후로는 강한 '동정심'과 '연민'마저 느끼게 된다.

죽은 자의 환영으로 인한 양심의 가책과 동정심, 연민으로 번뇌하고 고민하는 J.A.B.는 이를 벗어나려는 욕구-행위(querer-hacer)양식¹⁴⁾을 느끼게 되고 결국 대안을 발견하게 된다. 즉, 어떻게 하면 이 괴로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하는 지식-능력-행위(saber-poder-hacer escapar de la angustia) 양식을 접하게 되는 것이다. 이는 죽은 프루덴시오와의 '계약'(S₂)에 의해 가

14) Greimas는 PN을 사주(manipulación)-잠재력(competencia)-실행(performance)-제재(sanción)의 4단계로 구분하였다. 이 중 PN은 주로 실행단계에서 이루어지는 데, 이는 조작적 주체(sujeto operador)가 어떤 변화를 실현할 수 있는 능력이 내재하고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이 단계를 잠재능력이라 하는데, 이는 조작적 주체에 관계되는만큼 실행의 실현에 필수적인 조건으로서, 다음과 같이 세가지 양식형태로 구분된다.

i) 잠재적 양식(Modalidad Virtualizante): 의무(deber), 욕구(querer)

ii) 활동적 양식(Modalidad Actualizante): 지식(saber), 능력(poder)

iii) 실현적 양식(Modalidad Realizante): 행위(hacer), 존재(ser)

이를 쉽게 설명해 보면 다음과 같다.

querer-hacer: 행위를 실현하고자 하는 결심의 단계

deber-hacer: 명령, 필요, 양심에 의해 강제되어진 행위

saber-hacer: 행위를 위한 수단과 방법을 알고 있는 단계

poder-hacer: 행위를 가능케 하는 수단과 능력을 소유하고 있는 단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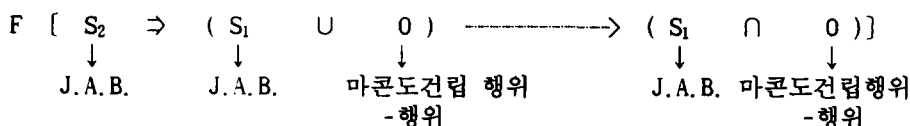
Greimas y Courtés, *Semiótica - Diccionario razonado de la teoría del lenguaje*. (Madrid: Gredos, 1982), pp.262-264 참조.

능해진다: “알았네 프루덴시오, 우리가 이 마을에서 떠나지. 될 수 있는 대로 아주 멀리 떠나가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것이니, 안심하고 물러가게.”(p.25)

산 자와 죽은 자와의 계약을 가능하게 한 요소는 물론 J.A.B.의 욕구-행위로 인한 ‘결심’이지만, 이 결심이 실행되도록 한 인식론적 요인은 J.A.B.의 의무-행위(deber-hacer)로 인한 피로움과 불안감이다. 그는 프루덴시오에 대한 가책 이외에도 근친혼으로 인한 이중의 정신적 부담을 느끼고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상황은 프롭의 용어를 따르자면 “결핍의 상태(estado de carencia)”인 것이며, 이 결핍의 상태는 주인공의 출발로 이어진다. “이렇게 하여 산을 넘어 떠나게 되었던 것이다”(p.25)라는 소설속의 언술처럼 말이다. 이에 대하여 그레마스는 “결핍이란 서술과정에 있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프롭이 말한 것처럼, 그것은 이야기 전개에 어떤 ‘움직임’을 주는 것이다. 즉, 주인공의 출발, 추구, 성공들은 실제로 그 결핍을 채워주거나 손해를 보상받게 할 것이다.”¹⁵⁾라고 설명한다.

따라서, 프루덴시오와의 계약은 본 PN의 핵심인물인 J.A.B.가 결핍의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하는 지식-능력-행위 양식과 새로운 희망의 도시를 찾아 이주토록 하는 능력-행위라는 양식을 동시에 접하게 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 그러면, 이주를 결심한 J.A.B.가 어떻게 마콘도에 정착하는가를 살펴보자.

1.2) PN.U.(2): 마콘도 건립



마음의 평정을 위해 이주를 결심한 J.A.B.는 몇명의 친구와 함께 “집을 정리하고 처자를 이끌고, 아무 약속도 보장되어 있지 않은 미지의 교장을 향하여 떠나게 되었다”(p.25). 일행은 「리오아차를 떠나서 결코 돌아오지 않는다」라는 프루덴시오 영혼과의 약속을 명확히 지키기 위하여 “발자취를 남겨놓지 않도록, 그리고 아는 사람과 만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그것만을 생각하며 리오아차로 가는 길과는 정반대 방향”(p.25)으로 가기로 했다. 이는 바로 고민과 번뇌의 제거과정인 동시에, 역경을 딛고 새로운 역사의 장을 펼칠 잠재적 공간(espacio virtual)을 찾아 떠나는 과정인 것이다. 여기서 잠재적이라는 의미는 “주체와 객체의 결합상태가 이루어지기 전단계로써, 아직 실현되지 못한

15) Ibid, p.50.

상태”¹⁶⁾라는 것이다. 이 과정은 리오아차 역사의 문을 닫고 마콘도라는 잠재적 공간에로의 문을 여는 역사변환의 단계인 것이다.

이 단계에서 발전하여, 마콘도 발견노력이라는 잠재성(virtualización)이 실현성(realización)으로 변화하게 되는 것은 약 3년 4개월이 지난 후였다. “얼어붙은 유리같은 맑은 물이 내딛는 바위투성이의 강가”(P.26)에 도착한 그들은 비로소 자신들이 찾아 해매던 잠재적 장소가 바로 이 곳, 마콘도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그날 밤, 호세 아르카디오 부엔디아는 바로 그곳에 거울로 벽을 두른 집들이 늘어선 변화한 도시가 세워진 꿈을 꾸었다. 그가 이 곳이 어디냐고 묻자, 사람들은 그에게 이제까지 들어 본 일이 없는 ‘마콘도’라는 이름을 말했다.(...) 적어도 꿈속에서는 그 말이 신비로운 음향을 지니고 있었다. 다음날, 그는 일행에게 바다를 발견할 희망이 없음을 설득시켰다. 그리고, 강가의 제일 시원한 장소에 터를 닦기 위하여 나무를 벌채하도록 명령하고, 바로 그곳에 마을을 세웠다.(p.26)

이리하여, 마침내 주체(S₁: J.A.B)가 추구하던 객체와의 접합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 때 가치-객체(objeto de valor)는 마콘도가 되며, 양식-객체(objeto modal)는 마콘도의 건설행위(hacer-hacer establecer Macondo)가 된다.

이와 같이, 주체와 객체가 접합하기 위해서는 실현적 양식(modalidad realizante)이 반드시 필요하게 되는데, 이 때 비로소 잠재적, 조작적 주체(J.A.B.)가 활동적, 조작적 주체로 변화하게 된다. 즉, PN.U.(2)에서 조작적 주체(S₂)이며 동시에 상태의 주체(S₁)인 J.A.B.는 ‘꿈’을 통해 마을을 건설할 수 있다는 지식-행위(saber-hacer la fundación de la aldea)를 획득한다. 꿈을 통해 자신들이 도착한 마콘도의 신비로움을 깨달은 것이다. 이 지식-행위를 획득한 J.A.B.는 동행 이주자들을 설득할 수 있는 능력-행위(poder-hacer)를 소유하게 되고, 결국 그들을 회유하는 사주(manipulación)의 주체가 된다. 위 예문에서 보는 바와 같이 동행자들을 ‘설득’하고 나무를 벌채하도록 ‘명령’하는 행위-행위(hacer-hacer)양식과 접합함으로써 PN.B.I의 최종단계인 「마콘도의 건설」을 이루게 된 것이다.

이를 종합해보면, J.A.B.가 지식-능력-행위(saber-poder-hacer la fundación)라는 양식적 능력을 획득함과 동시에 그 전까지 잠재적으로 나타났던 객체가 실현되어진 것으로 형상화된 것이다. 따라서 PN.B.I분석은 서술구조의 과정(proceso)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제 우리는 좀 더 통합적 의미를 담는

16) Ibid., p.437.

서술구조의 체계(sistema)를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이는 텍스트의 드러남의 층위에서의 ‘관계’들을 연구하는 단계로써, 그레마스가 제시한 행위자 모델(modelo actancial)을 통해 파악할 수 있다.

그레마스의 행위자 모델은 프롭이 민담이야기 분석을 위해 7인의 인물을 중심으로 분류한 행동반경(esferas de acción)과 수리오가 연극분석을 위해 6개로 분류한 기능의 목록에서 발전된 것이다.¹⁷⁾ “이야기와 극의 내용에 따라 극중인물은 바뀌어도 극-언술(enunciado-espectáculo)은 변하지 않는다.”¹⁸⁾는 전제하에 제시한 그레마스의 행위자 모델은 3개의 의미론적 관계에 따라 각각의 관계축이 이분법적 대립관계를 형성하는 6개의 행위자로 구성된다. 즉,

- i) 욕구(deseo)의 관계: 주체(Sujeto)-객체(Objeto)
- ii) 전달(comunicación)의 관계: 송출자(Destinador)-수령자(Destinatarío)
- iii) 참여(participación)의 관계: 협조자(Ayudante)-반대자(Oponente)

이러한 기본구조를 통해 PN.B.I의 종합적 체계를 파악해 보자.

욕구의 관계를 먼저 살펴보면, J.A.B.는 PN.B.I 전체의 구성을 이끌어 가는 요체 인물로써 주체적 기능을 수행한다. PN.U.(1)에서 리오아차를 떠나기로 결심한 행위자도 그였고, 마침내 많은 이주민들을 이끌고 산맥을 넘어 마콘도를 건설한 행위자도 그였다. 이때, 함께 마을을 떠나는 이주민들(우르술라, 친구들, 그들의 처자)은 집단적 주체를 형성하긴 하나, 이들에게는 어떠한 결정을 할만한 능력이 없다. 따라서, 이 집단적 주체는 능력과 지식 양식을 지닌 J.A.B.에 의해 수동적으로 행동을 하는 행위자들이기 때문에 능동적 성격을 띠는 주체의 기능을 상실하고 있다.

PN.B.I에서 주체인 J.A.B.가 획득하고자 하는 욕구의 대상은 두가지다. 첫 번째는 PN.U.(1)에서 본 바와 같이 리오아차를 떠나는 ‘이주’이다. 이주의 서술단위는 PN.B.가 실현되게끔 하는 사전단계로서 이로 인하여 주체의 두번째 대상인 ‘마콘도의 건립’이 PN.U.(2)를 통해 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전달의 관계를 이루는 관계는 지식(saber)의 축위에 놓여 있는 것으로서,

17) 프롭은, 행동반경은 반드시 인물과 일치한다는 전제 아래 공격자/중여자/후원자/공주/통치자/주인공/거짓 주인공 등의 입골인물을 기능 수행자들로 분류하였다.(V. Propp, *Morfología del cuento*, Madrid: Gredos, 1976, pp.268-269) 반면, 수리오는 이를 더 축소하여 사자/태양/땅/화성/천칭좌/달 등 6개의 행위자 목록을 제시하였다.(Greimas, *Semántica estructural*, Madrid: Gredos, 1976, pp.268-269) 그러나 그레마스는 이 모델들으로써는 소설 속에서의 복잡성과 애매함, 인물들의 다양한 심리적 반응이 부족하다는 한계를 느끼고 새로운 행위자 모델을 제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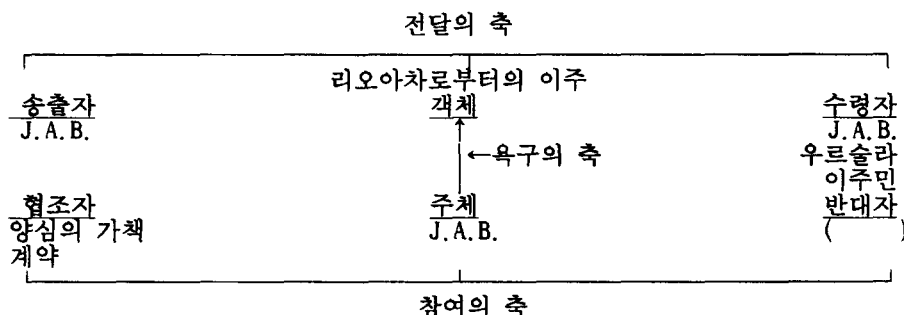
18) *Ibid.*, p.265.

“송출자에서 수령자으로의 관계는 상의적 관계(relación hiperonímica)이고, 반대로 수령자에서 송출자으로의 관계는 하의적 관계(relación hiponímica)”¹⁹⁾를 이루는 일방적 관계를 띠고 있다. 주체인 J.A.B.는 타인보다 뛰어난 지식을 가지고 선(善)과 이익을 나누어줄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한 송출자 역할을 하고 있다. 즉, 그는 이주행렬에 참가한 사람들에게 마콘도라는 불가사의한 지역에 그들이 원했던 ‘정착’을 하게끔 서술의 변환을 조작할 능력이 있었다. 따라서, 집단주체를 이루는 이주민들은 자연히 수령자의 역할을 맡게 된다. 뿐만 아니라, 수령자의 행위자에는 J.A.B. 역시 포함되는데, 이는 한 행위자가 여러 역할을 맡을 수 있는 기능의 혼합성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참여의 관계를 구성하는 협조자와 반대자의 관계는 주체가 객체를 획득하는 데 있어 어떤 역할을 하는가의 문제이다. 주체에게 도움을 주는 협조자는, PN.U.(1)에 있어, 주체의 도덕적 양심의 결과로 빚어진 ‘프루덴시오와의 계약’이다. 즉, 이 계약으로 인해 ‘이주’가 가능해진 것이다. PN.U.(2)에서는 J.A.B.에게 지식과 깨달음을 갖게 해 준 ‘꿈(sueño)’이 협조자로 나타난다. 이와 같이 행위자 모델에 있어서 행위자(actante)의 개념은 특정한 사람이나 사물뿐만 아니라, 각각에 해당하는 역할(rol)의 기능도 지칭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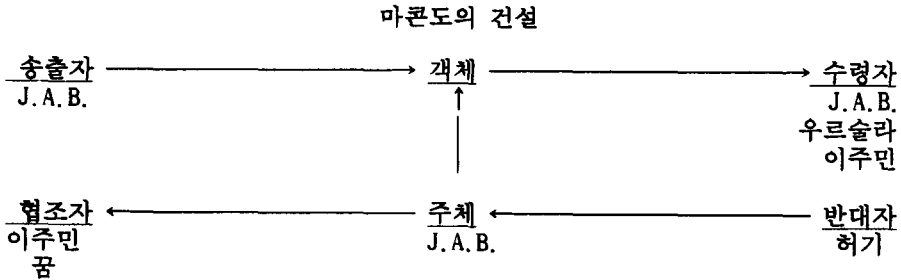
반면, 주체가 객체를 획득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반대자는 PN.U.(1)에서는 존재하지 않는다. 리오아차를 떠나려는 객체는 주체(J.A.B.)자신의 ‘결심’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PN.U.(2)에서 주체가 마콘도 건설을 이룩하기까지는 ‘허기’라는 인간의 원초적 본능과 투쟁해야만 했다: “주린 배를 부들켜 안고 눈의 초점을 잃은 그들의 모습은 차마 눈뜨고 볼 수 없을 정도였다”(p.25)

지금까지 살펴본 행위자에 따른 기능분류를 PN.U.에 따라 종합적 모델체제로 나타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PN.U.(1)부터 살펴보자.



19) J. Courtés, *op.cit.*, p.65.

상기 도표는 PN.U.(1)에서 주체(J.A.B.)가 객체(이주)를 획득하기까지 각 행위자들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종합적 체계도이다. PN.U.(2)에서는 다음과 같은 구성을 이루고 있다.



상기도표를 통해 볼 수 있듯이, 『백년 동안의 고독』의 복잡한 서술체계는 다양한 극중인물(actor)과 행위자(actante)들로 구성되어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소설에서 극중인물과 행위자는 서로 겹치는 이중적 기능을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한 행위자(A)는 담론에서 여러 극중인물(a₁, a₂, a₃)을 통해 표현되어질 수 있으며, 또한 반대로 단 한명의 극중인물(a₁)이 여러 행위자(A₁, A₂, A₃)들의 기능을 수행할 수도 있다.”²⁰⁾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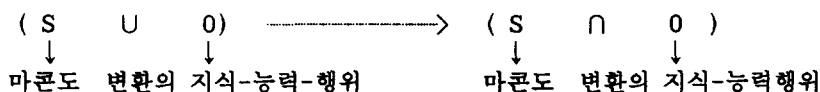
이는 지금까지 살펴본 서술구조가 다양한 극중인물과 행위자들의 복합적 기능관계로 구성되어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그러면, 지금부터 마콘도가 어떤 변환 과정을 거치는가를 살펴보자.

2) PN.B.II: 마콘도의 역사-문화적 변환

이는 앞의 PN.B.I와 연속성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서, 시간 추이에 따라 마콘도가 경제적 발전을 거듭하며 농촌부락에서 상업마을로, 다시 풍요로운 도

20) A. J. Greimas, “Los actantes, los actores y las figuras”, en *Semiótica narrativa y textual* (Caracas: Ediciones de la Biblioteca, 1978), p.199.

시로 성장함에 따라 일어나는 행위자들의 정신적, 문화적 변화상을 보여주고 있다. 이를 형식구도로 나타내보면 다음과 같다:



위 PN는 J.A.B.에 의해 건설된 마콘도가 경제적으로는 상당한 발전을 이루게 되나, 이와 반비례하여 주민들은 정신적, 물질적, 문화적으로 황폐해가고 착취당하는 과정을 담고 있다.

마콘도 역사의 가장 급격한 변환기를 다루는 PN.B.II의 주체는 크게 세 부류로 이루어 진다. 첫번째 중심세력으로 소설의 핵심을 이루는 주체는 역시 부엔디아 가족이다. 모두 7대에 걸친 부엔디아 가족 중 특히 다음과 같은 4대까지의 행위자들이 집단적 주체세력을 이루며 마콘도의 변환기를 이끌고 있다.

1대: J.A.B.와 우르술라

2대: 호세 아르카디오, 부엔디아 대령, 아마란타

3대: 아르카디오, 아우렐리아노 호세, 부엔디아 대령의 아들 17명

4대: 아우렐리아노 세군도, 호세 아르카디오, 미녀 레메디오스

이들 부엔디아 가족외에 사방에서 몰려든 외지인들이 두번째 집단적 주체세력으로서 마콘도의 발전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이들 중 특히 바나나회사의 미국인들은 현지인들의 노동력을 착취함으로써 J.A.B.가 이루려던 유토피아의 세계를 완전히 말살시키는 존재로 나타나고 있다.

마지막으로 마콘도의 주민들을 들 수가 있는데, 이들은 마콘도의 경제적 변화에 따른 인간적 가치의 퇴보에 직접적으로 대항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그러면, 마콘도의 역사적, 경제적 변환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상기의 세 주체세력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구조를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단계: 마콘도 발전의 초기: 신문명의 유입기

2단계: 마콘도의 번영기: 바나나회사 지배시대

3단계: 마콘도들의 각성기: 대규모 파업 발발기

이와 같은 단계별 발전구조는 PN.B.II의 서술 전개상 핵심을 이루는 단위이므로 이 단계적 흐름에 따라 PN.U.연구를 진행하기로 한다.

2.1) PN.U.(1): 신문명 유입으로 인한 유토피아의 붕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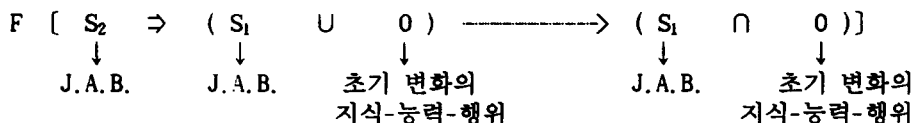
리오아차에서 이주한 사람들이 정착한 마콘도의 초기 모습은 우정과 끈끈한 인간관계를 바탕으로 화합과 단결속에 이루어진 유토피아적 사회였다. 마

콘도를 “질서와 노동을 모토로 하는 사회”(p.38)로 만든 것은 J.A.B.였다. 그는 “새로 온 사람들 사이에서도 신망이 두터워, (...) 토지분배의 책임자도 자연히 그에게로 낙착”(p.38) 되었을 정도로 오직 정의롭고 바른 사회를 건설하기에 여념이 없었다. 즉, 그는 지식-행위(saber-hacer)와 능력-행위(poder-hacer) 모두를 지니는 지도자로서 족장체제를 이룰 수 있는 잠재능력을 소유하고 있었다.

마콘도는 조직이나 생활형태면에서 원시적인 농촌부락의 형태를 이루게 되었다. 옥토와 온갖 새들, 그리고 젊은이들로 형성된 이 마을은 폭력이 없는 낙원의 모습, 바로 그것이었다. 폐쇄적 성격을 띠는 마콘도는 외부 정부로부터의 간섭도 받지 않는 자치적 독립체제를 지니고 있었다. 경제적으로도 독립적 자급자족 체제를 갖추으로써 화폐도 제역할을 하지 못하고 금의 존재는 단지 금물고기기를 만드는 세공재료에 불과하였다. 주민들간의 화합, 단결도 공동경작을 통해 이루어져 갔으며, 그들에게 법률을 지키라고 강요하는 권위적 정부도 없었다. 다만 그들을 돕고 조언해 주는 젊은 족장이 있을 뿐이었다: “초창기에 호세 아르카디오 부엔디아는 말하자면 젊은 족장으로 행세하여, 씨 뿌리는 일을 지시하고, 아이들의 양육이나 사육에 대하여 조언하고, 마을의 발전을 위해서라면 육체노동까지 하여, 마을사람들에게 협력을 아끼지 않았다.”(p.13)

이와 같은 J.A.B.의 지식-능력-행위는 그가 마을 전체에 영향력을 행할 수 있게끔 함으로써 주민들간의 사회-경제적 ‘균형’과 ‘평등’을 이룩하는 원동력이 되었다: “이 마을에서 가장 진취적인 기품을 지닌 호세 아르카디오 부엔디아는, 어느 집에서나 똑같은 노력을 들여 강가에까지 가서 물을 길어올 수 있도록 집들의 배치를 정했다. 그리고 다른 집보다 너무 햇볕이 드는 집이 없도록 거리의 방향도 정했다.”(p.13)

이러한 과정을 구조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마콘도가 주변 현실과는 관계를 맺지 못하고 고립되고 정제된 사회를 유지할 수 있었던 데에는 고립무원에 처한 지정학적 요인이 큰 몫을 했다: “제길헐! 마콘도는 사방이 바다로 둘러 싸여 있는 거야”라고 J.A.B.가 외쳤다.(p.16) 따라서 우르술라가 우연히 다른 세계와 통하는 길을 발견했을 때, 마콘도의 독자성과 격리성은 부서지기 시작했으며, 낙원의 마을은 실제 역사의 현실과 정면으로 맞부딪치게 되었다. J.A.B.가 ‘문명의 길’이라 부른 이 길을 통해 과학,

상업, 정부, 교회, 내란, 바나나회사 등이 유입되면서, 마콘도의 무시간적 정체성과 내적 균형이 깨지기 시작한다. 역사의 물결에 휩싸임에 따라 정의, 평등, 화합의 세계는 점차 타락해 가고 끝내는 회복불능의 상태로 소멸되어 가는 과정을 겪게 된다. 즉, 외부문명의 유입은 마콘도라는 유토피아의 세계를 타락, 파멸시키는 전조에 다름아닌 것이다.

가장 이성적으로 유토피아 건설을 주도했던 J.A.B.마저도 멜키아데스에 의해 유입된 발명품과 문명의 이기에 현혹되어 태도의 전환을 이루게 된다. 즉, 그는 과거의 냉철한 판단력과 분별력을 지닌 젊은 족장으로서의 지위는 내놓고, 과학과 문명의 가치를 높이 든 위대한 몽상가로 변하고 만 것이다. 이러한 모습은 자신의 존재를 확인하려는 은판 사진술 발명에 전념했을 때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이 때까지만 해도 마콘도인들은 과학과 마력, 이성과 상상에 대한 명확한 구분의 능력이 없어 혼동을 하게 된다. 즉, 얼음과 같은 구체적, 실제적 물건을 과학의 산물로 여기고 있었고, 기차와 같은 진정한 과학적 산물을 미신과 유령의 것 정도로 이해했던 것이다. 이는 마콘도인들에게 과학을 처음 전달해 준 사람이 환상가이자 마술가, 집시인 멜키아데스라는 점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중요한 것은 J.A.B.를 비롯한 마콘도인들이 아직 실제 현실속에 적응하며 역사를 이끌고 갈 지식과 능력의 양식적 가치를 획득하지 못했기 때문인 것이다. 이러한 양식적 가치의 부재는 자연히 그들에게 합리적 판단의 근거를 제공치 못하기 때문에 혼란과 혼동속에서 기존의 도덕적 가치마저 상실하는 결과를 낳게 되는 것이다.

무릇, 문명의 발전이란 인간적, 도덕적 발달과 궤를 같이해야 하는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산업발전이 완벽히 이루어진다 해도 그 사회는 타락하게 되고 문명의 해악만이 나타나게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백년 동안의 고독』에서는 문명의 발전과 인간적 가치의 발전은 균형을 잃고 만다. 문명이 유입됨에 따라 부엔디아 가족과 마을 사람들은 기존의 윤리적, 도덕적 자질을 망각함으로써 인생과 세계를 이해하고 대처하는 능력을 상실하게 된다. 즉, 인간 내적 발전을 피하며 참된 정체성과 자신의 존재를 인식하는 문화(cultura)의 부재로 인해 혼돈만이 가중될 뿐이다.

따라서 부엔디아 가족들간에 반문화적 근친상간이 이루어지게 되며, 부엔디아 대령은 내란 초기 자유주의 이데올로기에 심취되어 굳은 신념을 가지고 참전했으나, 끝내는 불신과 무의미, 막연한 불안감과 부조리에 의한 혼란만을 느끼게 된다. 결국, 그는 “큰 권력에 따르기 마련인 고독 속에서 방향 감각을 잃게”(p.143) 되었으며, “석회가 군데군데 떨어져 나간 벽, 구석구석 매달린 때문

은 숨과 같은 거미줄, 흰개미들이 마구 파먹어 씹은 대들보,(...) 그 외에 옛 추억을 불러일으킬 그 어느 것을 보아도 슬퍼하지 않을”(p.149) 정도로 무감각한 상태에 빠지게 된다. 이렇게 타락적 변화를 이루는 역사과정 속에서 다음과 같은 기호학적 대립관계가 마을을 감싸고 있음을 감지하게 된다: <<물질적 발전 VS. 인간적 가치 타락>>

『백년 동안의 고독』에서는 이러한 갈등관계가 객관적 현실과 상상적, 공상적 현실의 저변을 지배하면서 작가 특유의 서술기법을 통해 독자에게 인간실체에 대한 질문을 던짐과 동시에, 중남미 문화에 대한 비판을 시도하고 있다. 마콘도가 시대에 뒤늦게 과학문명을 받아들여 정신적, 문화적 혼동에 빠지게 되는 서술구조는, 고유의 문화를 창조, 발전시키지 못하고 정치-경제적 발전 모델과 예술적 경향 등을 외부에서 차용 내지는 수입해 온 중남미의 현실을 문제시하고 비판하려는 마르케스의 치열한 작가 정신의 소산인 것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PN.U.(1)에서의 마콘도인들 생활은 보다 큰 외부세력인 다국적 바나나 회사가 등장함으로 인해 정신적으로 타락하고 경제적, 물질적으로 착취당하는 반 노예 노동자의 수준으로 퇴락함을 보여주게 된다.

2.2) PN.U.(2): 바나나 회사의 착취시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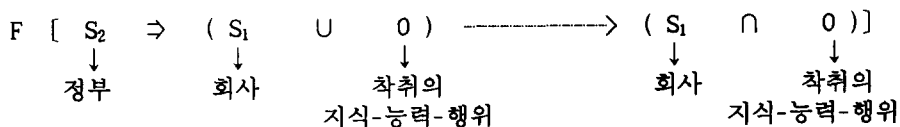
집시들이 가지고 온 마술적, 환상적 발명품들의 수준을 벗어나 진정한 근대적 문명의 이기들(발전기, 전구, 영화, 축음기, 전화 등)이 도입되게 된 결정적 계기를 만든 것은 아우렐리아노 트리스타가 얼음의 판매시장 개척을 위해 끌어온 기차의 도착이다. 기차의 출현으로 타지역과의 교류 없이 고립속에 생활하던 마콘도인들이 비로소 바깥 세상에 대해 눈을 뜨고 맞부딪치는 역사적 변환을 이루게 된다. 따라서 기차는 “불안과 확실함과, 기쁨과 불행과 재앙과 과거에 대한 향수”(p.191)를 상징하는 존재로 표현되고 있다.

기차가 출현한 이후, 제일 처음으로 마을에 도착한 미국인은 허버트였다. 그 뒤를 이어 브라운과 토목기사, 농업기사, 수문학자, 지질학자, 측량기사들과 상당량의 조사기구들이 반입되었으며 “의심 많은 마콘도 주민들이 무슨 일이 벌어지는 것일까하고 어리둥절하기 시작했을 무렵에는 벌써 사람들이 기차의 좌석이나 승강구 뿐만 아니라 객차의 지붕위에까지 타고 세계 각지에서 몰려와, 이 마을은 순식간에 함석지붕의 목조건물이 늘어선 합숙소로 변했다.”(p.194)

이리하여 마콘도에 미국의 다국적 기업인 United Fruit Company(U.F.C)가 침투하게 된 것이다.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1899년 미국인 로렌스 도우 베이커에 의해 설립된 U.F.C는 지주들과 소작농을 흡수하고 바나나 재배에 적합한 토지들을 매입하면서 콜롬비아 북부 항구도시인 산타 마르타(Santa Marta)에

들어온 것이다. 이들은 라파엘 레예스 정부(1904-1910)가 바나나 산업을 육성한다는 취지하에 대규모 토지경매정책, 무역제한조치 해제, 독점권(20년간) 부여, 면세 조치 등을 위함으로써 더욱 쉽게 규모를 확장할 수 있었다.

마콘도에 도착한 바나나 회사는 그들과 공존하려는 정부의 각종 특혜와 비호속에서 마콘도인들을 임금 노동자로 전락시키고 노예와 같은 비인간적 착취를 자행하게 된다. 회사측은 철도, 용수, 토지 등을 독점하면서 농장지역내의 모든 노동자들을 그들의 지배하에 관장함으로써, 이 지역내의 어떠한 주민들도 회사와의 관계를 끊고서는 다른 일자리를 찾을 수 없게끔 하였다. 이러한 상황을 이용한 회사측은 노동법을 무시한 열악한 노동조건하에서 낮은 임금을 지불하며 노동자들을 유린하였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PN.U.(2)의 구도가 형성되는 것이다.



이 구도는 이제까지 마콘도 변화의 주체적 행위자가 현지 세력인 부엔디아 가족에서 외부세력인 바나나 회사로 이행됨을 보여주는 것이다. 또한 과거 단순 농업경제시대에 중시되던 도덕적 가치가 자본주의 시대의 경제적 가치로 중요성이 전환되면서 도덕적 가치는 더욱 쇠퇴하고 소멸되어감을 나타내는 것이다. 따라서 본 PN.U.(2)는 과거와 현재의 경계를 보여주는 부분이라 하겠다.

그러면 행위자 역할의 중심부가 바나나 회사로 이전되면서 그들이 어떻게 노동자들을 착취했는가를 알아보자. 이는 노동자들이 제출한 요구사항서 내역에 잘 나타나 있다. “일요일까지도 근무하며 바나나를 따거나 운반하지는 않겠다”(p.250)는 내용이 포함된 청원사항은 다음의 귀절에서 나타난다.²¹⁾

노무자들의 불만은, 비위생적인 주거, 엉터리 의료, 부당한 노동조건 등이었다. 또 그들은 회사에서 임금을 현금으로 지불하지 않고 사내 매점에서 버지니아산 햄을 살 때만 쓸 수 있는 상품권으로 지급한다고 비난했다.(p.250)

21) 본 소설에 나타난 청원사항은 콜롬비아 실제 역사상 막달레나의 바나나 농장지역에서 「막달레나 노조연합」이 1928년 제출한 요구서의 내용과 대부분이 일치한다. 이는 『백년 동안의 고독』의 서술적 구조가 콜롬비아의 실제 역사를 형상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게 해주는 근거가 된다. Gabriel Fonnegra, *Las Bananeras: Un testimonio vivo* (Bogotá: Círculo de Lectores, 1986), pp.46-47 참조.

위에서 지적한 내용들을 좀더 자세히 살펴보자. 주거문제에 있어, 회사의 외국인 직원들은 '전기 닭장'속에서 매우 청결하고 위생적인 생활을 하고 있는 반면, 노동자들은 화장실도 없는 불결한 숙사에 가득 수용되어 있었다. 의사, 약품, 수술시설과 예방접종시설 등은 절대 부족하거나 아예 갖추어지지 않았으며, "학질이든 임질이든 변비든 간에 모두에게 똑같이 유산동 색깔의 알약"(p.253)을 나누어 주는 치료법을 썼다.

또한, 회사측은 자신들이 마콘도 주민들에 대한 유일한 노동기회 제공처라는 것을 빌미로 터무니 없이 싼 값의 임금을 지급하고 있었다. 그들은 최저임금을 받기 위하여 새벽 5시부터 밤 늦게까지 매일 일을 해야만 했다.

게다가, 임금도 현금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가 운영하는 매점에서 일용품을 교환할 수 있는 상품 교환권으로 지급했다. 이 매점제도는 거의 모든 중남미 제국들을 착취했던 미국계 회사들이 주로 이용한 것으로, 매점들은 막강한 경제력에 의해 독점권을 쥐고 있었다. 그러나, 노동자들이 받는 저임금으로는 최소한의 생활 필수품조차도 구입할 수 없는 형편이었으므로, 자연히 외상 매입을 하게 되고, 회사측은 이를 미끼로 노동자들을 더욱 착취하고 마음대로 조종, 통제했던 것이다. 만일 노동자들이 회사측에 항의를 하면 외상금 지급 불이행을 이유로 가차없이 경찰에 고소를 하였고, 변호사들 또한 회사측에 고용이 된 까닭에 노동자들은 승소를 할 수 없었다.

이와 같이, 바나나 회사가 '노동자 착취'라는 잠재적 욕구-행위를 실현적 양식으로 바꿀 수 있었던 것은 정부, 상공인, 의사, 변호사 등이 제공하는 지식-행위와 능력-행위라는 활동적 양식이 있었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면밀히 관찰할 필요가 있는 것은 바로 회사측을 지지, 협조한 행위자들이 모두 경제적 부를 지니고 있다는 점이다. 즉, "1880년부터 20C초까지의 라틴아메리카는 자본주의 생산양식의 부식기"²²⁾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때부터 마콘도 사회에서도 유산계급과 무산계급, 상층계급과 하층계급, 지배자와 피지배자의 개념이 명확히 드러나기 시작한 것이다. 과거의 수평적 사회구조가 자본주의의 수직적 사회구조와 경제적, 이성적 신분구조로 탈바꿈하게 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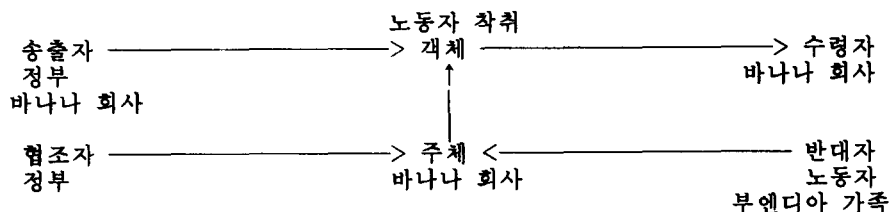
따라서, 행위자들은 양식적 가치(valor modal)의 소유 여부에 따라 두 그룹으로 나누어져 대립적 갈등관계를 이루게 된다. 한편으로는 그룹A(정부, 회사, 변호사, 의사, 상공인)를 상정할 수 있는데, 이들은 각기 소유한 지식과 선천적, 후천적 능력을 활용해 원하는 욕구-행위를 이룰 수 있는 집단이다.

22) Francoise Perus, *Literatura y Sociedad en América Latina: el modernismo* (México: Siglo XXI), 1980, p.43.

반면, 그룹B(노동자, 농민)는 의존형으로서, 그들의 잠재능력은 그룹A에 달려 있다. 다시 말하면, 그룹A는 그룹B가 원하는 것을 이루게 하거나 혹은 억제시킬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것이다.

이 두그룹간의 관계를 의사소통 축에 놓인 행위자인 ‘송출자’와 ‘수령자’간의 관계로 파악해 볼 수 있다. 송출자에서 수령자로의 관계는 상위적 관계이고, 수령자에서 송출자로의 관계는 하위적 관계라는 것을 고려한다면, 두 그룹간에 조성된 ‘능력있는 송출자’(그룹A) 對 ‘무능력한 수령자’(그룹B)의 관계는 ‘지배자’/‘피지배자’, ‘우세’/‘열세’, ‘풍부’/‘결핍’이라는 인간적 질서관계를 함축하고 있다고 하겠다. 또한 결핍을 해결하기 위해 수령자가 희망하는 욕구-행위에 반하는 능력-행위를 송출자가 실행한다면 이는 불공정, 소외, 무의탁 등의 의미소를 유발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분야에서 월등히 우수한 양식 가치를 소유한 바나나 회사의 등장으로 “마콘도는 경제적으로 완전히 예측화되어 외국 열강을 위한 단순 원료 공급자로 전락”²³⁾하였으며, 노동자들이 정체성을 상실하게 됨으로써 ‘노동’과 ‘질서’를 중시하던 과거 유토피아적 마콘도의 실체는 어느새 사라지게 되었다. 유토피아의 세계가 착취와 고통의 세계로 변모하게 된 것이다. 그러면, 지금까지 살펴본 PN.U(2)를 각 행위자들의 기능과 특성을 중심으로 정리해 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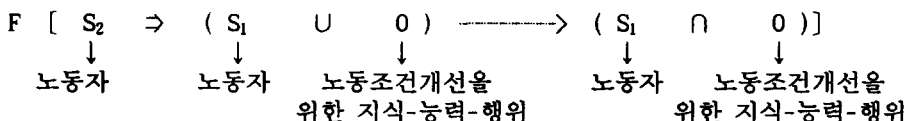
본 행위자 모델은 주체인 바나나 회사가 노동자를 착취하여 이익의 극대화를 꾀하려는 목적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보여 준 관련 행위자들의 행태에 따른 체계 분석이다. 이 상황에서 “옛날 짐시들보다도 더 사람들을 떠들썩하게 하는 영속적이고도 이해할 수 없는 큰 혼란”(p.195)을 느낀 노동자들은 마침내 주체와 객체의 접합 상태를 파괴해야 한다는 자각에 눈뜨게 되면서 동맹 파업이라는 적극적 방법을 택하게 된다. 이렇게 하여 발생한 사건이 바로 1928년 콜롬비아 북부 막달레나 유역 시에나가에서 일어난 노동자 파업과 학

23) Mario Vargas Llosa, *G.G.M: Historia de un deicidio* (Caracas: Monte Abila Editores, 1971), p.500.

살사건인데, 『백년 동안의 고독』은 이를 서술구조 속에 형상화한 것이다. PN.B.II의 마지막 단계를 이루는 파업의 과정과 구조를 살펴보자.

2.3) PN.U.(3): 노동자 파업

회사측의 착취에 견디다 못한 노동자들은 좀 더 인간다운 생활을 위해 현 상황을 타파해야 한다는 의무-행위(el deber-hacer)를 느낌과 동시에, ‘노동조건 개선’이라는 잠재적 욕구-행위를 나타내게 된다. 올바른 현실 인식에 바탕을 둔 자각에 의해 표출된 것이다. 이렇게 표출된 사건이 동맹 파업이다. 즉, 그들은 잠재적 양식인 노동조건 개선의 욕구-행위가 청원서에 의해 거부되자, 파업이라는 활동적 양식 방법을 택한 것이다. 어떻게 욕구-행위와 의무-행위를 실현시킬 수 있는가를 깨닫게 된 것이다. 아래 행위의 언술 변화는 그 서술 구조를 반영하고 있다.



회사측에 의해 청원서가 거부되자, 노동자들이 노동조건 개선 용구를 실현할 가능성은 정체 상태에 빠지게 되었다. 그러자, 그들은 ‘결심’이라는 인식적 요소를 통해 이를 실현할 수 있는 방법을 깨닫게 된다. 이 인식적 요소는 ‘실행’이라는 실천적 요소와 함께 행위(hacer)를 이루는 중요 요소이다.

‘결심’이란 “의무-행위의 결정”이라고 정의된다. 즉, 모든 결심은 행위를 수반하는 것으로서 예정된 계획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본 소설에서 결심의 주체인 노동자는 결심의 그 순간부터 ‘어떻게 노동조건을 개선할 수 있는가’ 하는 지식을 획득하게 되며, 그 답은 파업을 통해서인 것이다.

결심의 인식론적 범주내에는 목표를 획득할 수 있는 잠재능력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결심의 잠재능력은 곧 실행의 잠재능력과도 결부된다. 따라서, 우리가 파업을 “임금 노동자들에 의해 결정된 자발적이고 집단적 노동행위의 중지”라고 정의한다면, 집단 주체의 파업결정은 재귀적 성격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 즉, 결정과 실행의 주체는 모두 노동자 자신인 것이다. 이러한 경우, 파업자들은 그들의 행동으로 지배자/피지배자, 송출자/수령자의 관계를 청산하려는 의도까지 지니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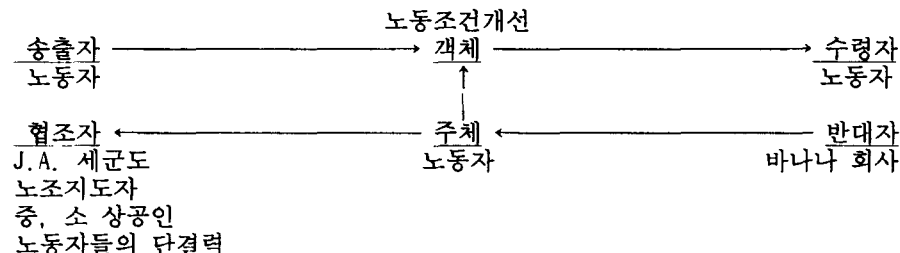
본 소설에서는 파업의 결정과 실행 모두가 노동자들에 의해 이루어짐으로써 그들은 일을 하지 않으려는 욕구(el querer-no-hacer el trabajo)와 접하게

된다: “곧 대규모의 동맹파업이 시작되었다. 농장의 모든 작업이 중지되고, 바나나는 나무에서 썩어갔다.”(p.295)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업이 집단적 행위자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점을 고려하면, 그들이 집단적으로 뭉칠 수 있도록 하는 양식(el hacer-querer ser colectivo)이 필요할 것이다. 이 양식을 가능케 하는 ‘조직자’(organizador)의 역할은 본 소설에서 호세 아르카디오 세컨도를 중심으로 한 노조 지도자들에 의해 나타난다. 그들은 노동자들을 사주하여 자각시키고 집단화시키는 데에 이미 익숙해 있었으며, 노동자들은 이들 조작적 주체에 의해 파업을 통해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지식-능력-행위(el saber-poder-hacer conseguir el objeto a través de la huelga)를 소유하게 된다.

그러나, 노동계약의 원칙은 노동-임금, 무노동-무임금이다. 따라서, 노동행위의 중지라는 파업을 행할 경우, 회사는 임금 지급을 중지하므로, 기타 다른 소득원이 없는 노동자들은 경제적 난관에 봉착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파업의 기본 요건인 노동을 하지 않을 능력(el poder-no-hacer el trabajo)이 경제적 문제로 인해 상실되게 된다. 이 때 그들에게 필요한 경제적 ‘후원자(promotores)’가 나타나는데, 이들은 U.F.C내의 매점 때문에 손해를 보는 중·소 상인들이다: “그들은 매점을 없애 버리도록 자금지원을 해 주었다.” 즉, 중·소상인 후원자들은 노동자들의 무노동 욕구(el querer-no-hacer)를 유지시켜 파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매점을 폐쇄하도록 자금을 지원해 준 것이다.

결국, 모든 파업 요건이 충족됨으로써 노동자들은 욕구-행위를 실현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고, 마침내 그들이 원하는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 파업을 실행에 옮기게 된다. 이를 행위자 모델을 통한 종합적 구도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지금까지 PN.B.II를 통해 마콘도가 근대 문명의 도입으로 인해 변환을 거듭하는 과정과 체계를 살펴보았다. 이는 마을의 개방과 함께 밀어닥친 역사의 타류속에서 물질적 변형과 정신적 타락의 갈등관계 속에서 혼란을 겪는 시기

에 해당한다. 이 혼돈의 시대속에서 파업이라는 방법으로 인간적 가치를 회복하려는 마지막 재생노력이 시도되었으나, 군대의 무력진압으로 실패됨으로써 가뜰이나 황폐해 있는 마콘도의 정신적, 문화적 뿌리가 완전히 소멸되는 결과를 낳게 된다. 이러한 마콘도의 내적(정신적, 문화적) 파괴는 부엔디아가의 근친상간의 결과로 낳은 돼지꼬리 달린 아이의 죽음으로 정점을 이룬다. 반면, 무력진압때부터 쏟아진 폭우는 마을 전체를 황폐화시키는 외적(물리적, 문명적) 파괴의 의미를 띠고 소설속에 등장하는 바, 다음의 PN.B.III에서 마콘도가 내적, 외적으로 파괴되어 가는 과정을 살펴보자.

3) PN.B.III: 마콘도의 파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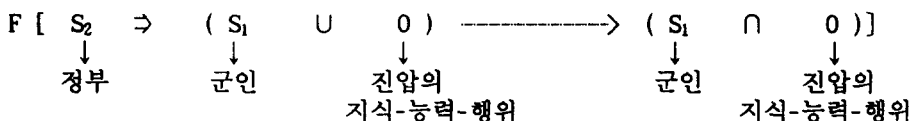
낙원의 땅, 약속의 땅인 마콘도가 신기루처럼 사라져가는 모습을 나타내는 본 이야기체 진행 구도는 다음과 같다.



이를 문화적, 문명적 측면에서 두가지 파괴요소로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는데, 먼저 파업의 무력진압으로 인한 인간적 가치상실 과정을 나타내는 과정을 분석해 보자.

3.1) PN.U(1): 노동자 파업의 무력진압

이 이야기체 진행은 정부(조작적 주체)가 어떻게 그의 목적(el hacer-hacer represión)을 이루는가 하는 과정의 종합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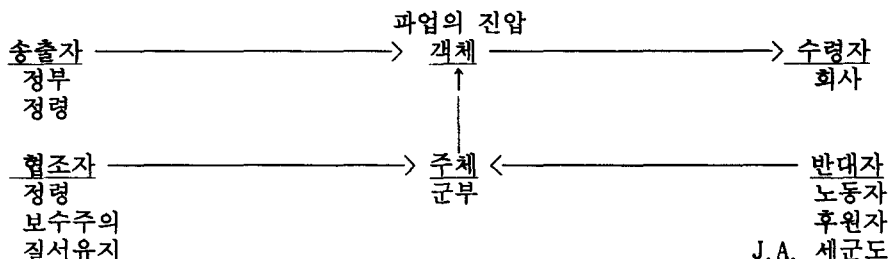


파업을 다른 각도에서 고찰해 보면, 노동자들에게 일을 시키려는 회사(el querer-hacer-trabajar)와 그것을 저지하려는 파업자들(el querer-hacer-no-trabajar) 간의 대립관계이다. 파업은 노동을 통해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회사측에 수입정지라는 결과를 안겨주게 된다. 이 상황에서, 회사측의 이익을 옹호해야 하는 정부는 정령을 발표함으로써 파업을 불법화시키고 참가자들을 불순분자로 규정하면서 개입하게 된다.

정령에 명시된 ‘사살권한’은 군대에게 진압방법을 알 수 있게 하는 지식-행위와 파업을 진압해야 하는 의무-행위를 동시에 소유하게 한다. 정부 또한 군대를 이용하여 파업을 진압할 수 있다는 지식-능력-행위(el saber-poder-hacer la represión)라는 활동적 양식을 얻게 된다. 이는 노동자들이 지닌 잠재능력보다 훨씬 우수하고 강력한 해게모니를 소유한 상태로서, 노동자 파업의 실패는 예정된 결과인 것이다. 마르케스는 참혹한 대학살 장면을 다음처럼 묘사하고 있다.

대위의 명령으로 열 네 곳의 기관총이 일제히 불을 뿜었다.(...) 사나운 진동, 뭉게뭉게 솟아오르는 연기, 천지가 뒤집히는 듯한 굉음, 이런 것들을 수반한 것이 놀라운 팽창력과 함께 군중들 한복판에서 폭발했다.(...) “엎드려! 땅에 엎드려!” 맨 앞줄에 있던 사람들은 기관총 탄환을 맞고 쓰러져, 이미 그 외침대로 되어 있었다.(pp.257-258)

이는 불균형적이고 모순적인 기존 질서를 ‘유지’하려는 지배계급의 지식-행위와 능력-행위가 ‘변화’를 추구하려는 피지배계급의 욕구-행위를 무력화시키는 장면이다. 이러한 구조는 다음과 같은 행위자 관계로 체계화된다:



현재의 불공평하고 부정의한 사회, 경제 질서를 마콘도 건설 초기와 같은 진실, 정의, 평등이 지배하는 사회로 환원하려는 시도가 좌절된 것이다. 이에 따라 ‘인간적 삶’을 원하던 부엔디아 가족을 비롯한 주민들은 고독, 무질서, 혼란 등의 정신적 공허감과 점차 비인간화되어가는 자신의 모습을 느끼게 된다.

현실과의 대결에서 패배하고 인간적 가치 회복에 실패한 피지배 계급은 현실에 대한 더욱 강한 거부감과 소외감 속에서 위축감과 왜소함을 느끼며 패쇄적 생활을 하게 된다. 이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유토피아적 낙원의 모습을 지녔던 과거를 회상하는 것이 고작이었다.(p.295)

은둔과 현실도피적 생활 속에서 본래의 인간적 가치를 상실한 행위자들은

아우렐리아노 바빌로니아와 아마란타 우르술라의 근친상간으로 영원한 고독 속에 빠지게 된다. 조카와 숙모사이인 이들은 비록 레베카와 호세 아르카디오보다 더욱 강한 사랑의 끈으로 맺어졌지만 이는 결국 마콘도의 상징인 부엔디아 가계 파괴의 예정된 운명의 서곡에 다름 아니었던 것이다. “이 집안 최초의 인간은 나무에 묶이고, 마지막 인간은 개미에게 뜯어 먹힌다”(p.347)라는 멜키아데스 수고집 서문 문구대로 부엔디아 집안 최후의 자손이 돼지꼬리를 하고 태어나 개미에게 뜯어 먹힌 것이다.

일반적으로 근친상간에 대한 터부는 - 레비 스트로스의 지적처럼 - 혼인 결합이 친족간의 자연적 행동에서 사회적, 문화적 행동으로 이전되는 것을 내포한다. 즉, 자연상태와 문화상태는 마치 동물과 인간의 관계처럼 상반된 개념으로서, “근친상간에 대한 금지는 자연에서 문화로의 이행이 실현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백년 동안의 고독』에서 아우렐리아노 바빌로니아와 아마란타 우르술라의 근친관계는 마콘도의 정신적, 문화적, 도덕적 파괴의 상징이며, 돼지꼬리 달린 아우렐리아노의 죽음은 영원히 쇠퇴되어 고독속에 묻히는 마콘도의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즉, 이는 인간적, 도덕적 가치를 존재 의미의 바탕으로 삼았던 유토피아의 내적 파괴를 의미하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볼 때, 파업의 무력진압이라는 사회적 요인과 근친상간이라는 가족적 요인이 유토피아를 파멸로 이끈 것인데, 여기에 홍수라는 자연적 요인까지 가세됨으로 해서 “마콘도라는 거울의 마을, 즉 신기루의 마을은 바람에 날려가 인간의 기억에서 사라져 버리게 되었다”(p.348). 이제부터 마을의 외부형태가 폭우로 황폐해 가는 과정을 나타내는 PN.U(2)를 살펴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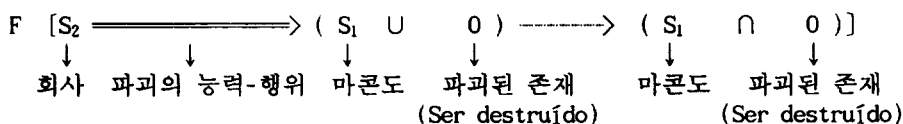
3.2) PN.U(2): 유토피아의 파멸

노동자 대학살이 끝난 후, 정부는 모든 정보를 독점하여 사건을 왜곡, 축소 하였으며, 회사 또한 사건을 은폐시키기 위해 학살이 행해진 날부터 “4년 11개월하고 이를 동안”(p.265) 계속 폭우가 내리게 하였다. 자연의 섭리마저 변화시킬 수 있는 과학의 위력을 이용하여 학살의 책임을 회피하고 은밀히 마을을 떠나기 위한 것이었다. 이러한 사실은 부엔디아 가족 최후의 행위자이자, 유일하게 사리판단 능력을 지니고 있던 아우렐리아노의 이야기에서 확인된다: “회사의 기사들이 노동자들과의 약속을 회피할 목적으로 저 홍수를 불러들였다는 것이다.”(p.293)

이리하여 “지상에서 마콘도를 지워버리게 될 불길한 바람의 전조”(p.278)인 폭풍으로 “집들의 지붕이 날아가고 벽이 무너졌으며, 약간 남았던 농장의 바나나 나무도 뿌리째 뽑히고 말았다.”(p.265) 집안 내부에서는 “습기가 있을

까닭이 없는 기계까지도 사흘마다 기름을 치지 않으면 톱나바퀴에서 곰팡이가 돌아났다. 금과 은에도 녹이 쏘고, 녹녹한 옷가지에서는 파란 이끼가 돌아났다.”(p.266)

결국, 마콘도는 완전히 폐허가 되었으며, “이 마을을 건설할 당시 호세 아르카디오 부엔디아가 탐험하고, 그 뒤에 바나나 농장이 번영한 이 마을의 토지는, 썩어 문드러진 포기만이 남은 습지”(p.278)로 변해 버렸고, 주민 모두는 건망증에 걸려 심지어는 바나나 회사가 마을에 존재했었다는 사실조차 잊게 되었다. 이러한 마을의 파멸과정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이 가시적으로 나타낼 수 있겠다:



즉, 회사가 지니고 있는 지식과 능력은 인위적 자연의 힘을 빌어 마콘도를 ‘영원한 고독’ 속으로 밀어 넣었으며, 이는 회사의 출현 때부터 부엔디아 대령이 예언한 대로 이루어진 것이다. 결국, 부엔디아 가족이 이루려는 유토피아의 세계는 이미 운명지어진 마콘도의 파멸과 함께 영원히 역사속에 묻히게 된 것이다.

우리는 지금까지 마콘도가 어떻게 생성-변화-소멸되어 가는가를 살펴보았는데, 이는 진실되고 정의로운 유토피아 사회가 파멸, 소멸되어 가는 과정에 다름아닐 뿐더러 인간의 출생-성장-죽음과도 궤를 같이하는 개념이라 할 수 있겠다.

『백년 동안의 고독』에서, 소외감, 공포, 무의탁, 고독 속에서 정의, 평등, 진실, 자유라는 인간적 가치를 추구하려는 피지배 계급의 파멸은 마콘도의 파괴와 유토피아의 소멸로 이어지며, 이는 곧 현실세계에 대해 부조화, 부조리를 느끼는 행위자들의 인간적 고뇌를 심화시키는 기능을 하고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표층구조 분석은 이야기의 논리적 전개과정과 행위자들의 기능, 양식 차이에 따른 변환체계를 보여주고 있다. 그러면 다음 장에서는 의미소적 동질성을 띠고 의미론 축위에 구성된 서술 요소들의 기본적인 의미 단위들을 연구하는 심층분석을 살펴보자. 표층구조 분석이 텍스트의 횡적(sintagmático) 질서 분석인 반면, 심층구조 분석은 종적(paradigmático)성격을 지니고 있다.

3.2. 심층구조 분석

심층구조의 근간을 이루는 “의미작용의 기본 구조(la estructura elemental de la significación)”는 논리적-의미론적 특성을 띠고 있으며, 이 구조를 이루는 의미론적 범주(categoría semántica)는 담론속에 숨겨진 의미작용을 해체하여 설명하는 역할을 한다. 따라서 하나의 의미론적 범주속에서 구성된 기본 단위들은 상호관계속에서 특이성을 발휘하며 텍스트의 의미작용을 산출해내는 역할을 한다.

본고에서 의도하는 ‘의미작용의 기본구조’는 “(도덕적, 미학적, 논리적) 기능체계에 대한 설명과(혹은) 이론”이라 정의되는 가치론의 추출을 가능케 해 줄 것이다. 그레마스는 이에 대해 “기호학에서 가치들의 종적 존재 형태는 가치론(axiología)이라는 이름으로 표현되고, (...) 기호학적 사각형(cuadrado semiótico)에 나타난 의미론적 범주는 각각 긍정적, 부정적 축(deixis positiva y deixis negativa)에서 가치론화되어 진다”²⁴⁾라고 설명한다. 따라서, 기호학적 사각형은 추상적 작용이 아니라 텍스트에 근간을 둔 세밀한 요소파악의 결과인 것이다. 그러면, 『백년 동안의 고독』속에서 마르케스가 제시하려는 가치론의 추출을 위해 의미론적 범주의 대립관계에 바탕을 둔 기호학적 사각형을 가시적으로 밝혀 보자.

1) 먼저, 소설의 공간적 배경을 중심으로 양립관계가 형성됨을 알 수 있다. 즉, J.A.B.가 이주를 하기 전에 살던 리오아차와 초기 마콘도와의 대비가 두드러진다. 리오아차는 ‘번민’과 ‘고뇌’의 장소이며, 초기 마콘도는 ‘화합’과 ‘질서’가 존재하는 유토피아의 세계로 형상화되었다. 따라서, <<마콘도: 유토피아의 세계 VS. 리오아차: 혼돈의 세계>>라는 공간적 축의 대립을 이루며, 그 하부의 대립 관계는 <<안정 VS. 번뇌>>로 이루어진다.²⁵⁾

24) A. J. Greimas y J. Coutyés, *op.cit.*, p.44.

25) 기호학적 사각형은 다음과 같은 세계의 관계를 바탕으로 이루어진다. 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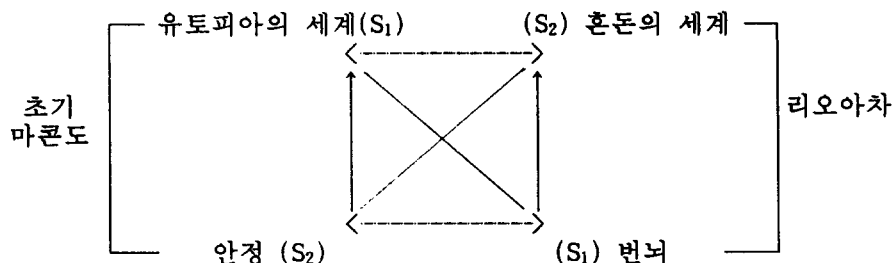
- i) $(S_1) <-----> (S_2)$: 반대관계(relación de contrariedad)
- ii) $(S_1) \text{ ————— } (S_1)$: 모순관계(relación de contradicción)
- iii) $(S_2) \text{ ————— } > (S_1)$: 전제 혹은 포함관계(relación de implicación)

이들 세계의 관계로 두개의 의미론적 대립축이 형성된다.

- i) $S_1 + S_2$: deixis positiva o eufórica

- ii) $S_2 + S_1$: deixis negativa o disfórica

A. J. Greimas y J. Courtés, *op.cit.*, pp.96-98 참조.



유토피아 세계의 의미론적 범주는 ‘무폭력’, ‘평화’, ‘정의’, ‘공평’ 등의 의소(sema)를 지닌 반면, 혼돈의 세계의 의미론적 범주는 ‘폭력’, ‘질서’, ‘험담’, ‘무질서’의 의소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PN.B.I의 전과정을 통해 일관성있게 펼쳐지는 이 서술구조는 동일하거나 유사한 담론요소들의 지속적 반복 속에서 이루어진다.

이렇게 동일 범주내에서 의미있는 내용 단위들의 반복성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 ‘동위소(isotopía)’²⁶⁾의 개념인 바, 동위소는 동일한 의미론 층위에 위치하는 담론과 언술의 동질성을 확고히 해줌으로써 텍스트의 모호성과 편파성을 극복할 수 있게 하는 역할을 한다. 그러면, 각축에 해당하는 의소를 소유한 의미론적 동위원소들을 찾아내어 상기 기호학적 사각형 구조를 보강, 확인해 보자.

**** 유토피아의 세계

- 겨우 개척된 신천지
- 아이들 양육이나 가축 사육에 대해 조언하고, 마을의 발전을 위해서라면 육체노동까지 하여(...)
- 햇별이 잘 드는 넓은 웅점실, 밝은 빛깔의 꽃들로 장식된 식당, 손질이 잘 된 채소밭(...)
- 우르술라의 부지런함
- (...)정돈되고 부지런한 마을이었다
- 새들의 합창
- (...)술선해서 사회에 봉사하려던 정신
- (...)침묵의 낙원
- 평화로운 인디언 마을
- 변화한 도시
- 정돈되고 부지런한 마을(...)

26) 동위소에는 문법적, 행위자적, 의미론적 동위소의 3가지가 있다. 본고에서는 의미론적 동위소를 중심으로 다루었다. Greimas, *En torno al sentido - Ensayos semióticos*, op.cit., p.351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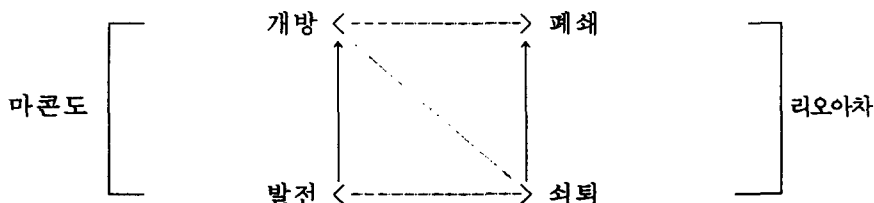
- 그것은 정말 행복한 마을이었다
- (...)아직 죽어간 사람도 하나 없었다

**** 혼동의 세계

- 악마의 냄새
- 깊은 반감
- 당나귀 같은 생활
- 늪지대
- (...)악몽의 세계를 방황했다
- 찢어진 낡은 돛폭(...)
- 이끼로 뒤덮힌 선체
- 고독과 망각의 공간
- 사나운 군용건을 끌고(...)
- 부끄러운 고문
- 해적
- 흥청거리는 파아티
- 싸움닭 내기
- 피에 굶주린 할아버지의 창
- (...)창이 그의 목을 꿰뚫었다
- 몹시 창백한 얼굴에 슬픈 표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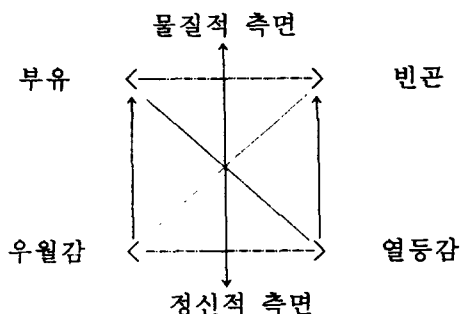
공간적 배경을 중심으로 분류한 위 동위소들은 결국 마콘도/리오아차라는 어휘소(lexema)가 지니는 의소들의 종합인 것이다. 마콘도는 동쪽에 위치한 건설, 환상, 긍정, 꿈의 세계인 반면, 리오아차는 서쪽에 위치한 부조리, 죽음, 암흑, 파괴의 세계이다.

여기서, 마콘도/리오아차의 관계를 개방/폐쇄의 관계로 전환시킬 수가 있는데, 리오아차에서 산맥을 넘어 새로운 도시 마콘도로 이주한 것은 폐쇄에서 개방으로의 이행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PN.B.I에서 본 개방의 의미는 노동을 통한 물질적 발전을 내포하고 있으며, 폐쇄는 곧 물질적 쇠퇴를 의미하므로 다음과 같은 종속 기호학적 사각형 구조를 가능케 한다:



그러나, 초기 단계의 유토피아 세계도 시간이 흐르고 외부 문명이 유입됨에 따라 본래의 긍정적 요소들이 무너지면서 경제적, 이데올로기적 갈등과 혼란을 맞게 된다.

2) 두번째, 경제적 성격을 기준으로 ‘부유’와 ‘빈곤’이라는 두 의소의 양립 관계를 설정할 수 있겠다. 마콘도가 상업도시로 발전하게 되고 바나나 회사가 진출함에 따라 과거의 경제적 균등성, 공평성을 누리던 모습은 사라지고 행위자들 사이에는 경제적 빈부의 차이가 드러나기 시작한다. 이에 따라 사회구조도 변화되어 자본주의의 수직적 신분구조가 정형화되어 사회계층간 대립이 발생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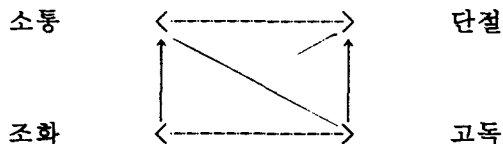


상부구조를 이루는 ‘물질측면’이라는 복합적 의미론 축의 하부 층위에는 ‘부유’와 ‘빈곤’이라는 하위적 반대관계가 성립된다. 부유의 범주는 정신적 우월감과, 빈곤의 범주는 정신적 열등감과 포함 관계를 맺게 됨으로써, 이들 의소와 상위 관계를 이루는 ‘물질측면’과 ‘정신측면’은 서로 모순의 관계를 지닌다. 물질적 부와 정신적 우월감이 동일 범주에 놓일 수 있는 것은 유물론적 개념에 의한 것이다: “지배 계층의 사상은 곧 한 시대의 지배적 사상이다. 즉, 지배적 물질 권력을 행사하는 계층은 그 사회에서 역시 지배적 정신 능력을 갖게 한다.”²⁷⁾ 따라서, 경제적 빈곤을 전제하고 있는 정신적 열등감은 나약함, 순수, 박해, 수동의 요소들을 포함하고 있는 반면, 정신적 우월감은 권력, 착취, 탄압, 무시, 탐욕 등의 의소들을 갖추고 있다.

바나나 회사가 등장하고 나서 발생한 이와 같은 양립 관계는 단순 농업경제시절의 수평적 신분구조가 경제적, 이성적 신분구조로 바뀌는 촉진제 역할을 한다. 따라서 상층계급과 하층계급은 서로 화합하지 못하고 유사 계급내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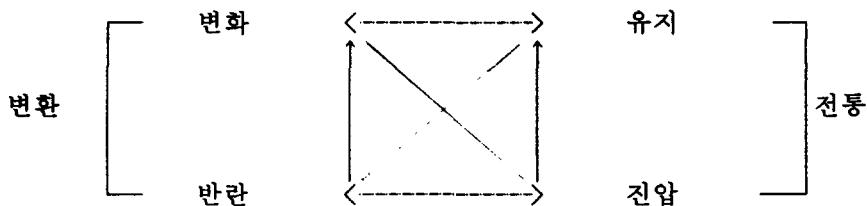
27) C. Marx y F. Engles, *La ideología alemana* (México: Fondo de Cultura Popular, 1972), p.72.

구성원들끼리만 의사교환을 이루게 된다:



이와 같은 구조속에서 경제적 이해관계를 공유하고 있는 정부, 회사, 군인, 자유 직업인들 사이의 단결력은 더욱 공고해지고 하층계급인 노동자들과는 대립, 갈등관계를 유지한다. 이러한 계층간 갈등관계는 마침내 이데올로기 대립으로 표출된다. 이는 소통-조화의 긍정적 범주보다는 단절-고독의 부정적 요소가 더 큰 서술구조를 지배하고 있는 본 소설에서는 불가피한 것이다.

3) 이데올로기와 관련지어 '변화(cambio)'와 '유지(mantenimiento)'라는 두 개의 반대 의소를 추출할 수 있는데, 이들은 각각 '변환(transformación)'과 '전통(tradición)'이라는 의소의 하부 요소이다. '반란'이라는 전제요소를 포함하는 '변화'는 부조리, 불평등의 요소를 타파하고 정의, 조화를 추구하기 위한 불복, 파괴 등의 의소들을 내포하고 있다. 반면, '진압'과 동일 축위에 놓인 '유지'는 기존 권력을 재창출하기 위한 보수주의와 억압의 성격을 지니며 복종, 권위 등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이데올로기 갈등의 구체적 사건은 내란과 파업의 두가지로 나타난다. 내란의 측면은 자유주의와 보수주의라는 정치적 이데올로기 대립이 표출된 것으로 부엔디아 대령이 중심이 된 개혁파와 보수정권과의 싸움이 펼쳐진다. 파업의 측면은 경제적 이데올로기의 갈등이 노동자와 회사, 정부와의 갈등으로 발발한 것이다. 그러나, 이 두 사건 모두 지배계급과 피지배 계급의 대립이라는 점과 변화를 바라는 집단의 실패로 끝난다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 즉, 보수정권의 권위와 부조리, 다국적 회사의 착취로부터 벗어나려는 두 사건의 주체들은 현 상황을 타파하려는 욕구-행위라는 잠재적 양식을 소유하고 있었으

나, 그들의 상대편이 소유하고 있는 진압 능력(el poder-hacer la represión)을 초월할 수 있는 행동양식을 결여하였다. 따라서 변화와 반란의 축에 속하는 행위자들의 추구는 실패하게 된다.

이와 같이 『백년 동안의 고독』에서 이데올로기 갈등은 기존 질서와 전통을 유지하려는 세력과 그를 타파하려는 세력 사이에서 발전하고 있다. 소설의 전편을 통해 도도히 흐르고 있는 이 대립, 갈등 관계는 결국 초기 마콘도의 유토피아적 사회를 파괴시켜 혼돈과 무의미로 가득찬 부조리의 사회로 변환시키는 역할을 하게 된다. 그러면, 지금까지 각 층위 요소들의 관계와 담론의 언어조직을 통해 살피본 의미생성 과정을 바탕으로, 작가가 소설속에 투영시킨 의미있는 구조가 무엇인가를 살펴보자.

4. 의미있는 구조: 부조리 세계의 역사적 고발

모든 인간적 가치가 파괴되는 위기의 시대를 맞이하면 인간은 삶의 의미에 대한 혼돈과 당혹감 속에서 마주하고 있는 세계에 대한 부조리를 느끼게 된다. 이러한 인간의 정신적 공허감과 부조리의 세계를 표현하는 것이 바로 소설이다. 『백년 동안의 고독』은 19C 중반부터 20C 중반까지 혼란스러운 콜롬비아의 정치, 사회상을 반영한 작품으로, 내란(1899-1902)이 보여준 자유파와 보수파의 정치적 대립관계와, 거대 독점 자본의 횡포에 대항한 막달레나 바나나 농장 지역의 파업(1928)이라는 경제적 갈등 관계의 두가지 큰 역사적 사건을 서술 구조의 기둥으로 삼으면서 이와 결부되어 발생하는 다양한 인간적 가치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소설의 서술적 구조의 핵을 이루는 이념과 계층간 갈등은 그 당시 콜롬비아인들이 나날이 심각하게 느끼고 있던 착취, 억압, 불평등, 부정에 항거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해계모니를 소유하고 있는 보수적 지배세력이 고수하려는 기존의 사회-정치 질서가 정당하고 올바른 체제로 자리를 잡게 되고 참다운 인간적 가치들은 배제되고 만다. 따라서, 진정한 가치추구를 꾀하던 행위자들은 투쟁의 무의미를 깨닫고 심한 무력감과 신념의 혼동을 느끼게 된다: “그는 불안에 지쳐 있었다.(...) 전쟁에 대한 이유도 수단도, 그리고 끝날 시기도 점점 더 알 수가 없을 뿐이었다.”(p.171)

이에 따라, 인간은 점차 더 깊은 무의탁, 이질감, 고독, 인생의 무질서를 느끼게 되고 세계는 끊임없이 인간을 위협하고 가치를 박탈하려는 거대한 괴물처럼 나타난다. 즉, 인간은 세계라는 파괴적 기계의 한 톱니바퀴에 지나지 않

는 존재로서, 물질주의적 비인간화 사회에서 점차 말라 비틀어지고 소진되어 가는 그레고리오 삼사(Gregorio Samsa)²⁸⁾와 같은 모습을 띠게 된다. 이상의 추구가 억압당함으로써 발생한 이러한 모습은 결국 인간으로 하여금 이전보다 더 심한 세계와의 괴리감을 맛보게 한다.

『백년 동안의 고독』에서 표출된 인간과 현실 세계와의 괴리감과 소외감은 모든 행위자들을 감싸고 있는 고독의 결과로 나타난 것이며, 이는 정치, 사회적 관점하에서 비로소 이해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은 비단 콜롬비아인들 뿐 아니라 중남미인들 모두에게 해당되는 것이다. 이에 대해 바르가스 요사는 다음과 같이 갈파하고 있다.

중남미인들의 깊은 소외감, 그들 사이에 존재하는 의사소통의 단절 등과 같은 일련의 규격 정하기에서 중남미인들은 현실과의 괴리감에 처해 지게 되었고, 이로 인해 좌절, 불구, 고독감 등을 느끼게 한다.²⁹⁾

즉, 『백년 동안의 고독』은 단지 콜롬비아의 상황만을 표현한 소설이 아니고, 중남미 전체에 만연되고 있는 인간과 세계와의 부조화, 이탈관계를 비롯한 모든 부정적 요소들을 극복해야 한다는 고발정신의 산물인 것이다.

이 소설에서 마르케스가 관심을 둔 것은 인간의 문제이다. 불안, 번뇌와 끝없는 고독 속에서 비극적이고 불행한 삶을 살아야 하는 인간의 본질을 다루고 있다. 그는 감수성 깊고 예민한 작가로서, 오늘날의 정치, 사회적 문제만을 증언하는데 그치지 않고, “예술가는 인간적 상태를 검증할 수 있는 극한 상황을 통해 그 시대의 아픔을 느껴야 한다”³⁰⁾는 철저한 작가정신을 표출하고 있다. 따라서, 마르케스에게 있어 모든 소설과 예술은 사회적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인간의 표현이며, 모든 인간은 홀로 존재하지 않는 공존의 관계를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모든 인간 심리학은 곧 사회 심리학이다.”³¹⁾ 즉, 그가 다루고 있는 인간의 깊은 심리학적 문제는 사회적 문제와 연결되어 있다. 이러한 마르케스의 사상은 『백년 동안의 고독』에서 형식과 내용, 담론과 이야기의 조화를 이룬 서술 구조를 통해 잘 나타나 있다.

마르케스는 본 소설에서 비논리적 부조리의 세계와 맞선 인간의 정신적 측면을 깊이 파헤쳐 들어가면서, 사회, 정치 구조의 모순을 갈파하는 폭력소설

28) F. Kafka, *La metamorfosis y otros relatos* (Bogotá: Oveja Negra, 1983)

29) Mario Vargas Llosa, *La novela en América Latina: Diálogo* (Lima: Ediciones Universidad Nacional de Ingeniería, 1975), p.11.

30) Gunter Lorens, *Diálogo con América Latina* (Barcelona: Pomaire, 1972), p.73.

31) *Ibid.*, p.76.

의 양식과, 인간이 중심이 되는 실존주의적 소설양식을 적절히 조화시켜 권력 욕구, 고독, 증오와 함께 희망, 정의, 평등, 자유의 추구하고 같은 인간 궁극의 문제를 제시하였다.

개인과 사회, 인간과 세계와의 갈등관계를 표현하려는 작가정신은 본 소설에서 역사적 사실과 신화의 결합이라는 독특한 서사적 구조를 통해 나타나고 있다. 이로 인해 『백년 동안의 고독』이 비록 사실주의에 연유하고 있다곤 하나, 단순한 자료 모음이나 수필의 수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갈등의 발생 근원에 대한 심층분석을 시도하면서 간접적 사회 비판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그의 사회 비판은 당국이 고시를 통해 발표한 허위적 신화의 해체 작업에서 더욱 명확히 드러난다. 파업의 무력진압으로 노동자들이 대학살을 당한 후, 정부는 모든 정보의 독점을 이용하여 전국에 허위 사실을 공식 발표한다: “죽은 사람은 없으며, 노동자들은 만족하고 가족에게로 돌아갔다.”(p.261) 이는 시민들을 마음대로 조작, 조종할 수 있는 헤게모니를 소유한 측의 역사 왜곡인 것이다. 이 때, 마르케스는 역사의 단절을 막으려는 호세 아르카디오 세군도의 노력을 통해 그의 역사의식의 일단을 보여준다: “잘 기억해 두거라. 3천명 이상의 사람들이 바다에 던져졌다는 사실을.”(p.298) 즉, 정부의 거짓과 왜곡으로 묻혀져 가는 역사적 진실을 후손에게 올바르게 알림으로써 착취당한 하층계급의 주장이 정당하였음을 밝히려 한 것이다. 정부의 ‘거짓’과 ‘은폐’, ‘역사탈취’에 대항한 ‘진실’, ‘정의’, ‘역사회복’ 추구의 노력인 것이다.

마르케스가 『백년 동안의 고독』의 서사구조를 통해 견지하려는 것은 바로 이런 사회비판 자세로서, ‘고독 속에서의 역사적 부조리 고발’이라는 의미있는 구조를 이 작품에서 추출할 수 있겠다. 텍스트에 산재된 기호의 총체라 할 수 있는 이 의미있는 구조는 『백년 동안의 고독』에서 그가 인생, 인간, 세계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마르케스의 비판적, 고발적 세계관은 그가 속하고 체험한 사회구조를 작품 속에 반영한 것이기에 결코 동떨어진 것이 아닌 시대적 집단의식의 표현이다. 그는 콜롬비아, 더 나아가 중남미 사회집단의 현실을 작품속에 창조된 세계속에 일관성있는 논리적 구조로 잘 형상화한 것이다. 특히 마르케스는 현실을 문학적으로 형상화 하는데 있어 단순히 사회, 정치적 문제에만 접근한 것이 아니라, 인간 궁극의 가치 문제까지도 섬세한 필체로 다루었다는 데에 큰 의미가 있겠다.

5. 결 론

우리는 『백년 동안의 고독』을 이해하고 그 작품이 내포하는 의미의 산출을 위해 의미작용의 과정 연구를 핵심으로 하는 기호학적 접근을 시도해 보았다. 심층구조 분석에서 의미론적 집단범주의 기호학적 연결을 통해 일련의 잠재적 가치 대립 문제를 살펴보았으며, 이러한 잠재적 가치 체계는 표층구조에서 행위자들을 통해 대립적으로 실행되어 비논리적, 혼동의 세계에 대한 전망을 가시화하고 있음을 보았다.

이와 같이 기호학 분석을 통해 작품을 해체하고 분해하는 과정은 “의미작용이 이루어진 개개의 체계를 찾는 행위이며, 이를 통해 작품의 담론과 형식 속에 숨겨진 의미를 간파하고, 이데올로기를 추출”³²⁾하려는 것이었다. 이러한 해체 과정이 다시 종합의 단계로 이전되면, 우리는 『백년 동안의 고독』이 인간과 세계에 대한 비판적 자세를 견지하는 미학적 개념에 기초하고 있다는 의미있는 구조를 파악할 수 있다. 이러한 현실 비판적 자세는 한 시대를 살아가는 집단의식의 표현이다.

이를 표현하기 위해 작가는 콜롬비아의 근대 역사를 재조명하면서 고독과 증오, 부정, 부조리라는 요소들을 서사적 구조속에 삽입시켜 이야기 축의 중심으로 삼고 있다. 이러한 부정적 요소들은 초기 마콘도의 유토피아적 세계가 타락의 세계로 운명적 변환을 거듭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의미있는 구조는 실제 역사적 사회구조 속에서 올바르게 이해될 수 있는 바, 문화와 문명, 정의와 부조리, 물질적 번영과 정신적 퇴락 속에서 균형점을 찾지 못하고 타락한 사회체제에 의해 파멸되어 가는 마콘도인들의 모습은 콜롬비아인들뿐 아니라, 모든 중남미인의 모습인 것이다. 마콘도의 변환과정은 꿈에 가득찬 아메리카의 유토피아가 소외와 고독으로 쇠퇴되어 가는 운명을 표현한 것이고, 호세 아르카디오와 마콘도의 몰락은 중남미의 독점 재벌과 부르조아 이데올로기 지배계급에 대한 비판의 표현인 것이다.

그러나, 마르케스는 이러한 현실을 단순히 반영하는 데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부조리 현실의 참상과 원인을 감파함으로써 한 시대를 살고 있는 집단의 열망, 이상, 희망이 성취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또한 작가는 신화와 마술적 요소가 결합된 작가 특유의 기법으로 기존의 사실주의 문학의 한계를 뛰어 넘어 실존주의적 인간가치 문제까지도 밀

32) Fabio Jurado Valencia, “Discurso y estética de la novela”, en Revista *Glotta*, (Bogotá: No.1. Enero-Abril, 1989), p.50.

도있고 균형있게 다룸으로써, 중남미 문학의 새로운 지평을 연 것으로 평가되는 것이다. 본 소설에서 보여준 허구와 사실의 시학적 조화는 독자들에게 다양한 해석과 이해의 가능성을 제공해 주는 ‘열린 작품(*obra abierta*)’으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으며, 사회현상을 매개하고 이해하는 문학작품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

참 고 문 헌

- AUGUSTO, Escoar M., *Imaginación y Realidad en “Cien años de soledad”*, Medellín: Ediciones Pepe, 1981.
- BARTHES, Roland y otros, *Análisis estructural del relato, Comunicaciones, No. 8*, Buenos Aires: Niebla, 1976.
- COURTES, Joseph, *Introducción a la narrativa y discursiva*, Buenos Aires: Hachette, 1980.
- CHANTAL, Mouffe, “Hegemonía, política e ideología”, en *Hegemonía y alternativas en América Latina*, Coordinado por Julio Labastida Martín del Campo, México: Siglo XXI, 1985.
- EARLE, Peter G., *Gabriel García Márquez*, Madrid: Taurus, 1981.
- FONNEGRA, Gabriel, *Las Bananeras: Un testimonio vivo*, Bogotá: Círculo de Lectores, 1986.
- GARCIA Márquez, Gabriel, *Cien años de Soledad*, Barcelona: Círculo de Lectores, 1970.
- GREIMAS, A. J., *En torno al sentido-Ensayos semióticos*, Madrid: Editorial Fragua, 1973.
- , *Semántica estructural*, Madrid: Gredos, 1976.
- , “Los actantes, los actores y las figuras”, en *Semiótica narrativa y textual*, Caracas: Ediciones de la Biblioteca, 1978.
- , *Ensayos de semiótica poética*, Barcelona: Planeta, 1976.
- GREIMAS, A. J. y COERTES, *Semiótica - Diccionario razonado de la teoría del lenguaje*, Madrid: Gredos, 1982.
- PASCUAL BUXO, José, *Las figuraciones del sentido-Ensayos de poética*

semiológica, México: F. C. E., 1984.

PALENCIA-ROTH, Michael, *Gabriel García Márquez*, Madrid: Gredos, 1983.

RESTREPO, Laura, "Historia y creación literaria en García Márquez", en *Cuadernos Colombianos*, No. 2, Segundo trimestre, 1974.

RODRIGUEZ-LUIS, Julio, *La literatura hispanoamericana*, Madrid: Fundamentos, 1984.

VARGAS LLOSA, Mario, *Gabriel García Márquez: Historia de un deicidio*, Caracas: Monte Avila Editores, 1971.

———, *La novela en América Latina: Diálogo*, Lima: Ediciones Universidad Nacional de Ingeniería, 1975.

Análisis semiótico textual: Estudio del proceso de significación en 『Cien años de soledad』

Yoo, Wang-Moo

El análisis semiótico textual de “Cien años de soledad”, del escritor colombiano G. Márquez, nos muestra que la novela plantea, como problemática universal la crisis del hombre inmenso en una época carente de valores auténticos, confirmando a la vez, que el signo verbal artístico literario es fruto de una sociedad concreta, la cual evoluciona en un tiempo y un espacio determinados.

Recurrimos a la disciplina semiótica por considerar que opera mediante procedimientos estructurales aptos para descubrir la organización significativa que produce el sentido profundo del texto, permitiendo vislumbrar una serie de valorizaciones que ponen al descubierto el modelo de conducta que oculta la obra artística literaria. Persiguiendo este objetivo nos propusimos someter a examen varios hechos textuales combinando diversos puntos de vista en cada secuencia, lo cual hizo factible alternar diferentes formas metodológicas, válidas dentro de los mismos parámetros de análisis semiótico.

En consecuencia, la estructura narrativa de esta novela nos conduce a reconocer una estructura significativa entendida como totalidad de signo: “denunciar en la soledad el mundo absurdo”. Es una estructura sintetizada de sus actividades sociales y su modo de ver y sentir el mundo revelado en la novela.

Márquez trata de criticar la realidad, proyectándola desde la intencionalidad de los actores para presentarla más viva, más humana, para hacerla sentir en su verdad esencial, para mostrar todo el dolor y la angustia del hombre frente a un mundo en crisis. Esta visión del mundo que tiene Márquez frente al mundo no es única ni aislada porque el escritor en la obra escrita expresa, a nivel estructural, una experiencia

vivida en la sociedad a la que pertenece. Es la expresión de una comunidad de sentimientos, pensamientos y acciones de los hombres que pertenecen a un medio social en que la visión del mundo se desarrolla; se trata de la representación de un fenómeno social, formada a través de un proceso de estructuración. En esta perspectiva, es una estructura dinámica media, o sea, la mediación entre la expresión concreta inmediata, la obra, y la vida social.

Desde otra perspectiva, si el escritor es testigo de su época, su tiempo y su mundo, su misión no es sólo tratar de los grandes problemas socio-económicos, sino también enfrentar a los problemas humanos. En este sentido, observamos que Márquez no se limita a plantear los problemas socio-históricos, sino va más allá hacia el nivel existencialista, planteando los problemas humanos que lo enfrentan al absurdo de la existencia, a la soledad, al desamparo y a la búsqueda de libertad, justicia, unidad e igualdad. Estos problemas no son menos reales ni menos importantes que los otros. Al contrario, estos son simplemente otro tipo de problemas que nunca como ahora se le presentan al hombre con tanta urgencia y dramatismo en las condiciones actuales de tensión y angustia en que vive bajo la amenaza constante del mundo degradado.

En este orden de ideas, "Cien años de soledad" fundamenta una concepción estética que postula una actitud crítica objetiva sobre el Hombre y el Mundo, con el fin de reivindicar un sistema de valores auténticos, base de toda fundamentación ética del hombre en particular y de la sociedad en general.